

SSAEM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Contents

2021 SSAEM Conference

I. 프롤로그

- 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6
- 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7

II. 행사개요

- 1. 행사배경 및 목적 10
- 2. 행사개요 11
- 3. 세부일정 12

III. 행사내용

- 1. 개회식 16
- 2. 패널토론 22
- 3. 기념 사진 촬영 36
- 4. 사례 발표 I 37
- 5. 2021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 학교 인터뷰 영상 상영 56
- 6. 사례 발표 II 57
- 7.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발표 70
- 8. 온라인 전시관 76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온라인 교육활동 전시관
- 9. 온라인 체험관 83
포토 방명록, 스탬프 미션, 만족도 조사
- 10. 폐회식 88

2021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1. 프롤로그

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6
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7

I. 프롤로그

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대상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 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교육교류사업입니다. 2012년도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교육교류사업은 지난 9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아태지역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양국 교사가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5개월간 배치되어 직접 수업을 실시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지 배치학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습니다. 7개 교류대상국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대상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간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학교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지 학생들 및 동료교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파견·초청 교사 자신들은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교육활동 경험의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지교사와 협력하여 교류대상국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낯선 환경에서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하는 경험을 통해, 참가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역량을 갖춘 글로벌 교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또한 교실을 넘어서 현지학교 동료교사 및 관리자들과 교육 경험과 교수법, 교실 및 학교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교류를 함으로써, 배치된 국가, 그리고 소속 본국의 교육현장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2.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과 교류대상국의 교사·학생·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사업 참여국가 내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한국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수요에 부응해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교류대상국의 교사들은 국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연수를 받고 국내 협력교사와 공동으로 수업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비단 사업에 참가하는 파견·초청교사 자신들에게만 국한되는 성과가 아닙니다. 배치된 학교의 동료교사는 파견·초청교사와 교육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춘 파견 및 초청교사의 전공·문화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교육의 수혜자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이해도 향상은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 제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과 교류대상국의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한국형 교육협력 ODA 모델 발굴의 초석입니다. 하드웨어 지원에 초점을 둔 기존의 ODA 방식과 차별화하여, '우수교원'이라는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교육 ODA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의 협력체제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SSAEM(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컨퍼런스는 교육교류사업의 종합성과보고회로, 참가교사들이 파견기간 동안의 본인의 경험과 성장을 이야기로 나누는 장입니다. 참가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역량 강화와 교류대상국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향상을 확인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SSAEM Conference는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치학교와 대상국 교육부가 참가 경험을 공유하여 이후의 사업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는 한국 교사와 외국 교사가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를 결성하여 화상 수업, 수업 자료 공유,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등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학교간 비대면 교육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한국 교사가 외국 교사와 협력하여 외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수업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통한 비대면 교육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 SSAEM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대면교류로 실시해온 교육교류사업의 새로운 형태인 '온라인(비대면) 교육교류'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됩니다.

2021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II.

행사개요

1. 행사배경 및 목적	10
2. 행사개요	11
3. 세부일정	12

II. 행사개요

1. 행사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다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습자들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학교 현장은 이에 발맞추어 학습자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역량과 감수성이 학교공동체 모두에 의해 발휘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21세기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자기 변혁적인 관점의 전환과 역량 강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습자들에게도 더욱 현장감 있는 체험적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아태지역은 최근 지역 내 이동과 교류, 협력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 분야의 교류와 상호이해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차세대를 위한 역내 상호호혜적 교육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 한편, 대한민국은 2009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을 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증대된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 인식 제고와 글로벌 역량 강화가 주요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사교류 사업을 구상,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을 꾸준히 실시했다. 2012년 몽골과 필리핀을 교류 대상국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말레이시아, 2015년 베트남, 2016년 태국, 2017년 캄보디아, 그리고 2020년 라오스가 합류하면서 현재 한국과 아시아 7개국 간의 양자 간 교류사업으로 성장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매년 한국과 교류 대상국의 교사들은 서로의 학교현장에서 한 학기가량 직접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을 체험하면서 서로의 교육 비전과 혁신적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한편, 한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여 왔다.

SSAEM(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컨퍼런스는 본 교육교류사업 참가 교사 및 학교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종합성과보고회이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된 본 컨퍼런스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 참가자 및 관계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증대 및 사업 추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교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역량 강화와 교류대상국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향상을 확인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SSAEM 컨퍼런스는 교육교류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배치학교와 대상국 교육부가 참가 경험을 공유하여 이후의 사업의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021 SSAEM 컨퍼런스는 기존 대면 교류와 구분되는 형태로 2021년도에 수행된 '비대면(온라인) 교육교류'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되었다. 국내·외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의 화상 수업 및 온라인 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대면·비대면 융합 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국내·외 기참가 교사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향후 후속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 행사개요

회의명 | 2021 SSAEM 컨퍼런스

주 최 | 대한민국 교육부

주 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일 시 | 2021. 10. 28. (목)

장 소 | 하이브리드형 행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 요 | 약 200명

참가자

- 교육교류사업 국내·외 참가 교사
- 교육교류사업 국내·외 학교 관계자
- 교육교류사업 대상 국가 교육부 관계자
- 교육교류사업 국내·외 협력/관련 기관 관계자
- 교육교류사업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교 관계자 등

대상국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언 어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요 구성 및 내용

본 컨퍼런스는 개회식·폐회식, 패널토론, 국내·외 참가 교사들의 사례 발표,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발표, 온라인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개회영상을 비롯해 귀빈 참석자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가 준비되었으며, 패널토론에서는 대한민국 및 대상국 교육부가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을 논의했다. 사례발표는 세션 I과 세션 II으로 나눠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세션 I에서는 화상수업 등으로 학교 간 교류를 진행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교사들이 사업 참여 경험 및 성과를 공유했다. 세션 II에서는 팬데믹 상황 하에 학생들의 학습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참여한 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교사들이 사업 참여 경험 및 성과를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다문화사업 성과분석에 관한 질적 연구의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아태교육원 및 교육교류 사업의 홍보물을 비롯해 상반기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의 활동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포토 방명록, 스탬프 미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온라인 체험관 또한 운영되었다.

3.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개 회 식		
10:30-11:00	개회영상	개회영상 상영
	개회사	유은혜 ,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환영사	임현묵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축사	HANG Chuon Naron ,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패 널 토 론		
11:00-12:00	좌장	임원진 , APCEIU 국제교사교류실 실장
	패널	김진형 ,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 Ren KUN ,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Rachmadi WIDDIHARTO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육인력과 부국장 Vong Deuan OSAY ,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Azhar AHMAD ,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과장 Oirov OYUNBILEG ,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Diosdado SAN ANTONIO , 필리핀 교육부 커리큘럼 및 교육 담당 차관 Yupha IEMSANGUAN ,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사 례 발 표 I		
13:40-15:00	발표자	이재원 , 대연초등학교 & Cherry Lyn V. Balbacal 필리핀 리잘초등학교
		이명희 , 담양중학교
		Jutamaus Thorat , 태국 샷타사뭇학교 & 양진영 , 봉담고등학교
		Saumon Bin Maliki , 말레이시아 케닝가우직업학교 & 김성희 , 인천공항공고등학교
Rujipa Boonsri , 태국 시리랏타나톤학교		
15:20-15:30	2021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 학교 인터뷰 영상 상영	
사 례 발 표 II		
15:30-16:30	발표자	장병철 , 한양대학교 컴퓨터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
		Hadi Sukoco Sumarya , 인도네시아 알하미디아중학교
		이정현 , 서울대림초등학교
		Bun Phallin , 캄보디아 오브라옥중학교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발표		
16:30-16:50	발표자	박순용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폐 회 식		
16:50-17:20	폐회사	임현묵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2021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III.

행사내용

1. 개회식	16
2. 패널토론	22
3. 기념 사진 촬영	36
4. 사례 발표 I	37
5. 2021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 학교 인터뷰 영상 상영	56
6. 사례 발표 II	57
7.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발표	70
8. 온라인 전시관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온라인 교육활동 전시관	76
9. 온라인 체험관 포토 방명록, 스탬프 미션, 만족도 조사	83
10. 폐회식	88

III. 행사내용

1. 개회식

일시 | 2021. 10. 28. (목) 10:30 ~ 11:00 (30')

사회 | 이승희 아나운서

언어 | 영어 사회 (한국어 동시통역)

내용 |

올해 SSAEM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모인 가운데 국내 발표자들은 현장에서, 해외 발표자들은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개회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임현목 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HANG Chuon Naron 장관의 축사 영상이 이어졌다.

구분	내용
개회영상	개회영상 상영
개회사	유은혜,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환영사	임현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축사	HANG Chuon Naro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주요사진 |



개회영상 |





개회사

유은혜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먼저, 2021년 SSAEM(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학기 중에도 한국을 포함하여 멀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서 함께해주신 선생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사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류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쌈 컨퍼런스는 올 한 해 각국의 선생님들과 정부에서 추진해 온 온라인 교육교류에 대한 고민과 노력, 그리고 값진 결실을 나누는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정말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지역, 그리고 국가들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지구촌 모두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루어진 교육교류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 함께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였고, 선생님들께도 전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쌈 컨퍼런스가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그동안 쌓아 올린 경험을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유익한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도 각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제교류와 세계시민교육이 지속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쌈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다문화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끊임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대한민국, 그리고 교류대상 국가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쌈 컨퍼런스에 유은혜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형 쭈은 나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님께서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님과 형 쭈은 나론 장관님의 격려와 영감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여러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는 교육교류를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통해 올해에는 보다 개선되고 발전한 교육교류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교 중단,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와 적절한 장비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과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교류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8개 국가의 참여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올해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과 강한 의지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1 쌈 컨퍼런스라는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시기에 교육교류를 이어간 것 자체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는 우리의 연대가 매우 강하여 팬데믹조차 우리의 협력과 교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교육교류사업에 있어 8개 국 교육부의 지지가 몹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 국가의 교육부는 팬데믹이라는 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류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올해에도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본 사업을 향한 8개 국가 교육부 관계자분들의 강한 의지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팬데믹 위기에도 지속된 교육교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대가 팬데믹 이후에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위기에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와 헌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강화된 면모를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팬데믹은 결국에는 극복될 것입니다. 끝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 더욱 보람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쌈 컨퍼런스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참가자분들의 협력과 결속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사

HANG Chuon Naron (형 쭈은 나론)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선, 2021 SSAEM 컨퍼런스에 대해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대한 우리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OVID-19 팬데믹은 우리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뒤이어 찾아왔습니다. COVID-19는 위기임과 동시에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함께

생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이겨냄과 동시에 팬데믹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뉴노멀시대에 양질의 사회를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유대감을 쌓고 함께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미래를 위한 공통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캄보디아는 회원국으로서 참여교사 수를 늘리고 보다 광범위하게 이행하여 국내 차원과 국외 차원에서 모두 본 사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본 사업을 이해와 실천을 향상시키는 주춧돌로 인식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가 제공하는 정책 오리엔테이션과 내부적인 참여를 통해 교사들은 지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온라인 교류라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핵심 미션을 이어가면서 뉴노멀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사업 관계자분들께서 사업의 존속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사업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모두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2. 패널토론

일시 | 2021. 10. 28. (목) 11:00 ~ 12:10 (70')

좌장 | 임원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실장

패널 |

번호	이름	소속 및 직함
1	김진형	대한민국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
2	Mr.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3	Mr.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육인력과 부국장
4	Ms. Vong 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5	Mr. Azhar AHMAD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과장
6	Ms. Oirov OYUNBILEG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7	Mr. Diosdado SAN ANTONIO	필리핀 교육부 커리큘럼 및 교육 담당 차관
8	Ms. Yupha I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진행순서 |

내용	발표자	소요시간
오프닝 (패널토론 구성 안내)	임원진 실장	2분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김진형 과장	2분
질문 1-1.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팬데믹 상황 하에 올해 본 교육교류 사업은 학교 간의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진 실장	2분
질문답변	대상국 패널 3인	각 4분
질문 1-2.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팬데믹 상황 하에 올해 본 교육교류 사업은 학교간의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 사업에 어떤 기대를 갖고 참여하셨는지,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던지 당국의 맥락에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진 실장	2분

질문답변	대상국 패널 3인	각 4분
질문 2. (대상국 전체) 교육교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교육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당국의 교육 정책 및 의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비추어볼 때 본 사업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진 실장	2분
질문답변	대상국 패널 7인	각 4분
정리	임원진 실장	2분
교육교류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패널토론 마무리 말씀	김진형 과장	2분
클로징	임원진 실장	2분
질문 3. (대상국 전체) 많은 국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점을 '종식'이 아닌 '공존(Coexist with COVID-19)'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존을 전제로 앞으로 본 교육교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당국의 비전 또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국 전체 서면 답변	

패널 토론 내용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김진형,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

2012년에 시작한 이래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세계시민교육의 훌륭한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선생이자 본보기가 되어, 교사들과 학생들은 '세계시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교사들이 국가 간 이동하는 '교사 교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도, 상호 협력하며 그간의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류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류 사업을 위해서는 ICT 인프라가 전제 조건이었으나 모든 국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촉하며 1:1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학생 간 유대(rapport)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 어려웠습니다.

이런 장애물은 없앨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상국, APCEIU와 교사들은 문제에 대응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저는 2021년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 간 이해가 중요하다는 공동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어려운 상황 속,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수업 자료들을 사전에 발송해 학생들이 수업 동안 학습 활동을 따라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회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온라인 교류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이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전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 불가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이제 부담이 줄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교류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향한 첫걸음을 뚫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접근성을 통해 전 세계에 세계시민교육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COVID-19로 인해 우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확보를 위한 노력이긴 하나,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지속하는 것 역시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해야 할 과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전례 없는 재난이 더 이상 우리를 단절시키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교육교류 사업은 유대와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실로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계가 심화되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류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모든 교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교육교류사업을 가능하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1-1

팬데믹 상황 하에 올해 본 교육교류사업은 학교 간의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zhar AHMAD,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과장

말레이시아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된 금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또는 KOMTEP: 한국-말레이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이동제한명령(MCO)을 내렸으며 그 결과 불가피하게 우리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본 교육교류사업에 관해 우리 교사들은 한국 학교와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전체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활동마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동성이나 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은 인터넷과 ICT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기술 자체 사용에는 능숙했으나 하드웨어 유효성과 통신 안정성이 특히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지방에서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해 학교 시설로부터 떨어져 자택에서만 지내던 교사와 학생 모두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COVID-19는 또한 교사,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일부 교사, 학생들은 가족이나 본인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자택에서 감염의 감정적, 심리적 영향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사업의 요구사항들을 완수해나가고 사적인 일과 직장 일의 성공적인 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순전히 그들만의 독창성과 회복력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UNESCO APCEIU, 말레이시아 교육부, 툰 후세인 온(Tun Hussein Onn) 교사 재단, 각 주의 교육 담당 부서들, 학교와 한국 교류학교 등이 제공한 원조와 지원을 통해 교사들은 대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강의 시간 측정, 학습 활동 조정, 상황에 맞는 그룹 프로젝트 수정에 대한 유연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사업이 본래 의도하는 영향과 효과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면서도 그 유연성이 발휘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신속하게 계획의 대안과 방안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학습 활동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사용했습니다. 본 사업 이전에 교사들은 이미 학생들과 몇 시간 동안 재택학습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전 KOMTEP(한-말 교사교류)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의 니즈와 요건, 한국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대안과 방안으로서 개인 통신기기를 활용했고, 특히 수업자료나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말 그대로 각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사들의 회복력과 인내심은 실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Diosdado SAN ANTONIO, 필리핀 교육부 커리큘럼 및 교육 담당 차관

우리가 직면한 주된 어려움은 국제적 이해를 발전, 촉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해외 학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원격 교육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는 '맥락화'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3개 수업의 진행 과정에 발판으로서 활용된 공통적인 결과물이나 관행을 필리핀인, 한국인들 사이에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렇게 발견된 결과물과 관행을 갖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획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적으로, 이제는 국가 간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짐이 되는 캐리어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교사들의 교육 영상 제작 능력을 활용해 한국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학습자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수업을 제작했습니다.

Yupha I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우선, 이렇게 어려운 해에 교육교류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태국은 2021년 신학기를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즉, 평소보다 1달 늦어진 것입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는 6월 14일에 문을 열긴 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수학습을 위한 교실 및 학교 건물의 사용과 그 어떤 교육 활동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즉, 방콕에 있는 학교들이 본 사업을 위해 다 같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학교는 온라인 교습 절차에 대한 준비, 리허설 후에 이를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강의 리허설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강의 리허설과 녹화를 위해 자비로 학교 외부 공간을 빌리고 대여료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COVID-19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은 본 교육교류사업이 이전과 같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류를 위해 온라인 교수학습전략이 활용되었습니다. 태국 교사들은 태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또 한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 및 실행해내야 했습니다. 이는 참여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계획대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 방식대로, 즉 한국 현지에서 참여하는 것이 태국 교사들에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말씀 드리면 방콕의 대부분, 학교나 상점, 여러 정부 기관들이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교육 자료 패키지를 수령할 때도 교사들은 개인보호복(PPE)을 입어야만 했으며, 팬데믹 동안 우체국 또한 폐쇄되었기 때문에 배송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긴 했으나 태국 교사들은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사들 자신이 가슴 깊이 직업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인내심과 야심, 온화함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태국 교사들은 태국 학생, 한국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질문 1-2

팬데믹 상황 하에 올해 본 교육교류사업은 학교 간의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 사업에 어떤 기대를 갖고 참여하셨는지,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던지 당국의 맥락에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본 사업은 교수자료를 온라인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나, 캄보디아는 그럼에도 본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어 캄보디아의 사회·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종합적이고 양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교사, 관리자, 지도자를 교육하고 우리나라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은 물론 학급 내에서의 교수라는 양 측면에서 반성적 실천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본 사업이 캄보디아의 사회·교육적 환경에 무한한 지지와 보탬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만족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사, 관계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통해 배운 것들을 그들 자신만의 상황과 맥락에 적용하는 데 열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서로가 나눈 좋은 추억을 회상하고자 이들이 한국 학교, 교사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캄보디아 교사들에게 어려웠던 점은, 일반적으로 기술 활용 및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뿐 아니라, 교육적 지식과 기량을 학급에 적용하려 할 때 학교 행정가들의 지지를 받기 다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육인력과 부국장

학교 폐쇄는 COVID-19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었습니. 그러나 그 비용과 효용은 아직도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MoECRT)는 온라인 교육 자료의 개발이 진행된 이번 사업에 대해, 특히 IT 리터러시 같은 교사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교육공동체·생태계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또한 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의 교육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양국의 협력은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을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모범 사례를 성찰하고 공유하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이루어내기 위한 미래 협력을 구축하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Oirov OYUNBILEG,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몽골 학교들은 2020년 1월부터 폐쇄되었으며 2021년 9월 1일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모든 학년 및 모든 과목에 대한 학교 수업이 TV로 방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원격교육 수단으로 교실 수업과 학습을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계에 따르면 총 65만 명의 몽골 학생 가운데 17만 4천 명이 전기, 인터넷, 스마트 기기에 제한적으로만 접근 가능해 정규교육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올해 본 사업에 기대하는 바는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에 관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은 몽골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이며, 이에 따라 교사들은 스마트 기기,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과 더불어 빈틈없는 조직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사업에 참가한 4명의 몽골 교사들이 한국 동료교사들로부터 이러한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에 이 훌륭한 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질문 2

교육교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교육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당국의 교육 정책 및 의제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비추어볼 때 본 사업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팬데믹이 발생하자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는 전국적으로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학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식에 급진적 변화를 도입했으며, 학생과 교사를 Covid-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선언했습니다. 교육청소년체육부는 21세기에 필요한 혁신 및 이와 관련한 능력에 대한 니즈에 더해 세계화, 글로벌 안보 이슈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 체계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갖추게 하도록 때로 정책과 아젠다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입안자 및 의사결정자, 교사 및 행정가들이 그 수단을 강화하기에 최적의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육인력과 부국장

인도네시아 전역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뉴노멀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MoECRT)는 2020년 3월 중순에 원격학습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여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021년 9월 중순에 저희 부처는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해, 디지털 학습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며 인터넷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더불어 학습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캠페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결손의 정도도 반드시 파악해야 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현재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혁을 위한 세 가지 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교사와 교육 인력의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펠베라자란 베르바시스 TIK(PEMBATIK)이라는 IT 기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6,800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28,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이 있던 2020년과 2021년에 PEMBATIK 참가자는 2020년 70,000명, 2021년 80,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루마 벨라자르(Rumah Belajar)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사용자가 2,000만 명 이상이며 접속횟수는 2억 1,700만 회가 넘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해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구루 벨라자르 단 베르바기(Guru Belajar dan Berbagi)라는 기술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요 구루 벨라자르(Ayo Guru Belajar)’이고, 두 번째는 ‘아요 구루 베르바기(Ayo Guru Berbagi)’입니다.

세 번째 축은 인터넷 네트워크 커버리지, 인프라, 실행을 촉진하고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특히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 기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역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격 학습은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크게 의존하지만 데이터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면서 학생들은 원격 학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및 통신비가 학부모에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부처에서는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크레딧, 데이터 패키지 형태로 7조 2,000억 루피 규모를 제공했습니다. 보조금은 매달 학생들에게 35 기가바이트(GB) 인터넷 데이터 패키지 형태로 배포되며, 교사들은 42GB 데이터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참가자들이 얻은 교훈을 활용 및 공유하게 하는 것이 저희 평가와 교수법 개선에 영향에 중대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Vong 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대표해 패널로서 여러분들께 팬데믹 이전 대비 저희 라오스의 교육, 정책, 아젠다의 변화 양상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또한 아태 지역 교사교류가 갖는 의미의 변화 또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모든 분야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은 지난 해 교육 분야에 전례 없는 영향을 끼쳤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 특히 최빈국의 기존 교육 체계가 가진 약점과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도 학교에 폐쇄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수준의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일한 형태로서 여겨진 기존의 대면 교육 방식을 온라인 및 원격 학습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갑작스런 변화들로 인해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 및 ICT 시설에 관해 예고와 지원 또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원격 강의를 수행하며 원격학습 지원과 사회 감정적인 지원을 하며 학교 폐쇄라는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원격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 기술, 도구, 인터넷 통신의 부족이 여전히 이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라오스 교육체육부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국제협력, 지역 및 주변국과의 협력 등 국가 발전을 지원할 조건과 기회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국가발전, 특히 교육과 체육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상당한 양적,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체육부는, 타국 교사들과 모범적인 교육 방식을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교수법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라오스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다양한 교육 혁신 모델을 배우고, 모든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하도록 장려하는 포용적인 강의 방식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통해 라오스 교사들이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에 대한 문해력 및 상호 이해를 향상시키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Azhar AHMAD,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과장

말레이시아는 교수학습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는 데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역경을 직면하고 있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금 기운을 회복해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에 대해 도움이 되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세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위 ‘교육 기회 상실’을 ‘수많은 교육 기회’로 전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 접근법, 기술과 도구 혁신의 가속화를 촉진하고 권장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디지털 수단 활용, 자기주도학습 및 독립적 시간 활용을 위한 유연성 증대, 개인 맞춤형 및 역량 기반 교육의 적용, 학교 폐쇄에 따라 학습 결손을 겪은 많은 학생을 위한 대안적 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모로 팬데믹은 교육 분야에 대한 세계적 변화와 전환에의 적응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더 중요하게는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혼합 교육 접근 방식을 활용해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학습의 과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혼합된 형태의 협업, 온라인 코칭 및 멘토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변화, 전환에 관한 긍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금년에 실시된 온라인 KOMTEP(한-말 교사교류)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교사들은 추가로 “온택트 시대의 한국 교육(Korean Education in the Ontact Era)”에 대한 웨비나를 조직해 협업을 위한 심도 있는 장 또한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활동들의 정보를 담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OMTEP(한-말 교사교류) 기존 참가 교사들은 혁신과 모범 사례의 공유를 위해 사업 참여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세계시민교육, 특수교육, 실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체 같은 영역을 교사들이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파급 효과도 있었습니다.

실로, 2021 온라인 KOMTEP(한-말 교사교류)은 교육에서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반향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말 교사교류는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며 교육 공동체에게 그 자체로 공유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례 표본과도 같습니다.

Oirov OYUNBILEG,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2020년 8월 몽골 국가대회의 결의안을 통해 채택된 2020-2024 정부 행동 계획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교육의 강화를 교육 분야 주요 목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COVID-19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교육적 도구나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70,000여 명의 아이들은 TV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이는 학교 폐쇄 기간 동안 교육받을 기회를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포괄하는 공평한 학습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Diosdado SAN ANTONIO, 필리핀 교육부 커리큘럼 및 교육 담당 차관

작년에는 공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물리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은 원격학습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원격학습의 개념이 필리핀에서 아예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원격학습이 광범위하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원격 학습 양식과 체제가 강화되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APTE 사업은 교육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타국의 교육 활동을 성찰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Yupha I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비록 COVID-19 상황이었지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의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교육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인적 역량 및 학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좋은 세계시민'을 키워내기와 21세기의 변화에 부합되는 학습 절차 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교육 정책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특히 디지털 세대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학습 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등 교사들은 외국어 강의 능력 향상과 교수학습 내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받아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교수 과정에서 ICT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합니다. COVID-19 전까지만 해도 태국 교사들은 교실에서 ICT 미디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교육 정책이라는 변화에 따라 태국 교사들은 2020년부터 태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숙련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태국에서는 1학기를 6월 14일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국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도 마찬가지로 6월 14일에 시작되었고, 이는 태국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태국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PTE 사업에 참가한 태국 교사들은 팀워크를 발휘해 가르치는 방법은 물론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교류 사업에 완벽하게 임하기 위해 교수적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교사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어를 매개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이행 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한국과 태국의 학생 및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에 맞추어 서로의 문화와 학업적 주제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 이후 태국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며, 본 사업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국제적인 수업들을 듣고 한국 교사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며, 선물도 받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교사들은 한국 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직접 만난 적도 없어도 동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양국 교사들과 학생들은 물론 우리 태국 교육부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교류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김진형,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

COVID-19은 거의 2년 간 지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팬데믹 종식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고 계속 환경이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는 사업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열쇠는 '유연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올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류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국제교류에 보다 많은 교사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들이 사업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까지도 행동을 이어갈 동인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온라인 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들 간의 가고 역할은 물론, 교사들이 학습 자료와 활동을 게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실이자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와 교사들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의미한 교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교사들이 사업 이후에도 교실에서 후속 활동을 펼치고 세계시민교육을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교사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스스로 국제 교류가 가능한 교실을 지속하게 하는 완벽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 교류는 팬데믹 상황의 대안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 모두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본 사업은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를 보장할 것입니다.

COVID-19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 교육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틀에 박히지 않은 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대상국 교육부들 및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상과 아이디어를 증명하고 또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교육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모든 분들께 이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3

많은 국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점을 '종식'이 아닌 '공존(Coexist with COVID-19)'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존을 전제로 앞으로 본 교육교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당국의 비전 또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Ren KUN,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뉴노멀 시대가 계속된다면 캄보디아는 국민 예방접종 및 코로나 검사 실시를 지원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해, 2021년 10월 8일자로 당국이 목표한 백신 접종률인 인구의 99.16%를 달성했으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achmadi WIDDIHARTO,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육인력과 부국장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단 우리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삶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생활의 각 측면에서 건강을 위한 프로토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종되는 한 우리들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과 활동들을 포함해 삶의 각 국면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ong Deuan OSAY,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며, 이는 현 교육 시스템이 가진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초래됨에 따라 전통적 수업 방식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원격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부와 교육자, 학생들은 교육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야기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변화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은 ICT 활용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업무와 삶의 측면에서도 뉴노멀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왓츠앱,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도 교수학습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앞서 언급한 여러 플랫폼과 채널은 물론, 다양한 ICT 기기를 활용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공백과 손실의 회복을 위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수학습을 실행할 때 공통의 교육적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의 교수 실행을 관찰하고 자문하며, 무엇보다 모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교수 실천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교류사업은 라오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이러한 혁신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입니다.

Azhar AHMAD,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과장

온라인 진행 방식이더라도, 한국-말레이시아 교육교류사업의 목표와 목적은 말레이시아 교육에 있어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선도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특히 모든 국가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코로나19와의 공존’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교사 교류와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통로로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 폐쇄와 교육 활동의 많은 지장을 겪었으나, 교육교류사업은 그럼에도 여전히 다양하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 교류 활동이 어려워진 전례 없는 시기를 맞이하여 본 사업의 미래는, 교육 활동을 새로운 규범 및 방식으로 조화시키는 회복력 및 독창성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엄격한 보건, 안전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나긴 터널 끝에 비치는 빛 한 줄기처럼 한국-말레이시아의 대면 교류는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향후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한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연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의 시행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늘 염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교육과 문화 교류의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Oirov OYUNBILEG,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전제로 몽골 학교는 9월 1일부터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등교를 지속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보건부의 권고와 지침을 따르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단언컨대, 몽골은 향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대면교류 재개를 간절히 바라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Diosdado SAN ANTONIO, 필리핀 교육부 커리큘럼 및 교육 담당 차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인류의 신기술 활용을 전적으로 이끈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단지 신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하게끔 가속했을 뿐입니다. 디지털화, 자동화는 늘 있었으며 팬데믹 위기는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 뿐입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물리적으로 학교에 등교해 교실에서 출석하는 것만이 배움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믿음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존까지 우리는 종퇴자 문제 및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팬데믹 상황에 이르러서야 일반적인 정규 수업의 제한적 조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교실이다”라는 의미가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전제는 어느 때보다도 유의미합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더욱 더 견고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규 교육 분야 내 원격 교육의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이 활용하고 있는 원격교육 방식은 ‘교육 손실’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우수한 관례는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확대 및 증폭되리라 믿습니다.

Yupha IEMSANGUAN,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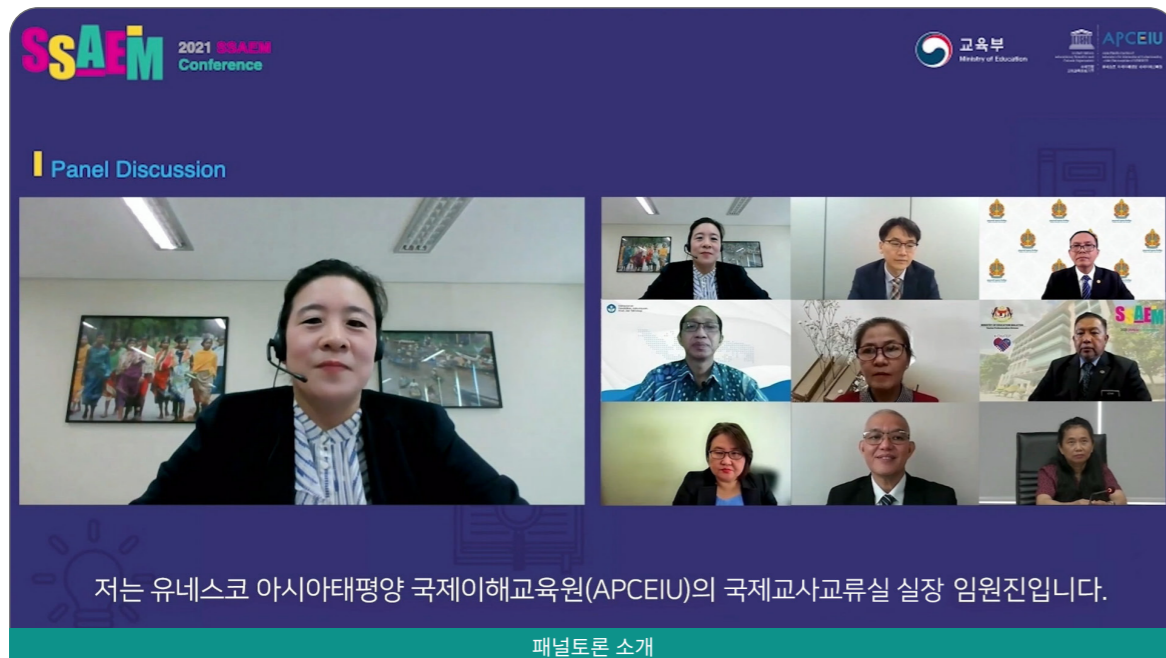
코로나19와의 공존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추구하는 강력한 대응 기조입니다. 이 질병과 공존하지 않는 삶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뉴노멀의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계획과 정책까지 준비 및 조정해야 합니다. 나쁘든 좋은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것도 이러한 목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시행된 교사교류사업은 파일럿 버전인 듯한데, 물론 장애물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대상국들 모두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를 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 교육부와 APCEIU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헤아릴 순 없겠으나, 사업에 참여한 양국 모든 교사들이 얻은 경험은 매우 값질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대면 교사교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교류사업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 교육부와 APCEIU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태국 교육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뤄내신 모든 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요사진



패널토론 소개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국제교사교류실 실장 임원진입니다.

패널토론 소개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과장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원교육부 부국장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부 과장



몽골 교육과학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육인력과 부국장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사관리부 사무관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정책기획부 과장



필리핀 교육부 커리큘럼 및 교육 담당 차관

3. 기념사진 촬영



4. 사례발표 I

일시 | 2021. 10. 28. (목) 13:40 ~ 15:00 (80')

사회 | 이승희 아나운서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

번호	이름	소속	발표 제목
1	이재원	대연초등학교	Things Share with the Philippines
	Cherry Lyn V. Balbacal	필리핀 리잘초등학교	OBB of Project LAYAG
2	이명희	담양중학교	Korea - 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3	Jutamaus Thorat	태국 샷타사뭇학교	Online Educational Activities of Sattasamut School, Thailand
	양진영	봉담고등학교	Onlin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4	Saumon Bin Maliki	말레이시아 케닝가우직업학교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Keningau Vocational College)
	김성희	인천공항고등학교	2021 SSAEM - KOMTEP
5	Rujipa Boonsri	태국 시리랏타나톤학교	Sirirattanathorn School

1-1. Things Share with the Philippines

이재원, 대연초등학교

저는 부산 대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옹골찬세계시민연구회로 이번에 활동을 했던 발표자 교사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의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및 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가해 주신 저희 팀원들과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발바칼 선생님을 포함한 필리핀의 교육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완수를 해준 75명의 한국 친구들과 그리고 20명의 필리핀 친구들, 미래를 만들어 갈 우리의 세계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작은 발표가 이 순간에도 여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보람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필리핀에 리잘초등학교와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돌아보기, 사람들, 우정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라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주제는 'To be a Global Citizen Together' 이라는 내용으로써 5월부터 7월까지 수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 목표입니다. 필리핀 선생님들께서는 전통춤, 그리고 전통 음식, 자연 보호를 주제로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필리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 한국의 음식과 보드 게임, 양국의 학생의 인식 비교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 대응 폐쇄 조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명이라는 제한된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3개의 합반 학생들이 한 번씩 기회를 나눠가져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은 좀 더 수업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캐나다인인 리셀 선생님이 흔쾌히 합류를 해주셔서 필리핀 친구들에게도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활동 목표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sns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다음에 서신 편지를 통해서 직접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참가 아동과 학교 관계자 모두의 이름으로 맹글로브 나무를 직접 심어주시고 거기에 태그까지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학교는 학교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지를 못하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집에서라도 나무를 심어주자. 이렇게 해서 직접 아이들이 태그를 부착하고 아이들에게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비록 대면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형의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활동 목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필리핀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었는데,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했다가 못 했다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sns를 활용해서 참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역시 활발한 소통과 sns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서,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의 어떤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이라고 하는 수업 도구 등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도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을 위해서 심어준 맹글로브 나무처럼 한국 친구들은 이제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의 고유 무늬를 넣은 이름을 편지와 함께 동봉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메일이 닿지 못할 만큼 지금 코로나로 좀 상황이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멀어졌지만 화상을 통한 만남은 아이들에게 먼 나라의 친구를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갈 수는 없어서 이제 이렇게 버추얼(virtual) 여행 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너무 즐겁게 하는 이런 모습들.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놀이로 이렇게 됐다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활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활동의 주인공들은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활동을 담당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개성과 특기로 필리핀 아이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선물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계 캐나다인인 리셀 선생님께서는 필리핀 아이들에게 세계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필리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필리핀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학생 그리고 지역 사회가 정말로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상당히 수업 자료조차도 수준이 높고 수업 자료들이 매우 정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도 세계 지역 시민들을 활용하는 이런 공동체 활용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이 방법을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글로브 나무를 심어주기, 그다음에 집 화분에 이름을 써주기, 그리고 가상 여행하기, 편지 쓰기, 한국 공예품을 전달하기 등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한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서로를 정말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무사히 이렇게 친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이고 그 어떤 승전보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들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활동은, 필리핀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그냥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자기 피부로 와 닿고, 친구를 사귀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언젠가 필리핀을 방문해서 자신의 눈으로 자기의 이름이 달려 있는 그 나무를 직접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의 경험만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 방식에 접근함으로써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조금 더 이 활동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더 길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사들의 우정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활동이 마무리된 후에 필리핀 지역의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에 착안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생님께 지역 교류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살고 계시는 가족 아홉 팀과 그리고 한국의 일곱 팀들이 매월 2회 씩 토요일마다 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 문화,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양국의 언어를 배우면서 장기 자랑, 그리고 일상 모습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필리핀 학생들은 아직 학교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이런 일상 공유는 필리핀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기분 좋은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춤으로 한국 아이들에게 직접 선보인 저 필리핀 친구의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의 맘과 눈물이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임을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리핀과 이렇게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 OBB of Project LAYAG

Cherry Lyn V. Balbacal, 필리핀 리잘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 린 발바칼이라고 합니다. 만다나오 필리핀 연구회의 대표 교사입니다. 2021년 SSAEM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희 팀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한 저희의 놀라운 여정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대한민국 교육부, 필리핀 교육부 및 지역 교육청 및 교육감님, 리잘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 및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도 굴하지 않는 교육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제 11지역 파나보시에 위치한 리잘초등학교에서 준비한 필리핀의 우수 사례와 교육 활동이 담긴 저희의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Cherry 오늘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 라야그(LAYAG)의 여정을 떠나실 것입니다. 프로젝트 라야그는 저희가 주도한 혁신적인 사업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학생들이 SDG 자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Honey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한국-필리핀 교육교류사업에 참가 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교류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사업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Shella 프로젝트 라야그는 2021년 4월 15일 전날 탄생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교사이자 이 사업의 지지자로서 저희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화상회의를 하며 고민해왔습니다. 세계화로의 여정은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도 그렇듯 교육 또한 새로운 규범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국가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민이라고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아, 폭력, 평등, 환경 문제들은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입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야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Cherry 저희는 지속 가능한 학습을 주제로 진행하기를 원했고 요즘의 학생들도 기술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 수업을 제작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건강과 웰빙, 문화 수용과 존중, 환경 보호라는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Honey 저희는 이러한 영상 수업을 이용해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 영상을 저희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결과물도 패들렛에 포스팅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한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필리핀 학생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Dodie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학교, 교육청, 그리고 파나보시 정부, 또 아들과 딸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esson 1 Experience

Johnna 건강이 자산이죠. 건강은 SDG 17개의 목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춤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춤이야말로 위험한 건강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 중 하나입니다. 춤은 건강과 웰빙을 증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속춤 첫 수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저희의 문화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했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Lesson 2 Experience

Honey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는 트룬 만들기입니다. 아리기야라는 저희 지역의 관광 명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파나보시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인 트룬이라는 바나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Shella 저희의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산적인 곳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 저희는 요리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Lesson 3 Experience

Dodie 이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마카칼리카산, 즉 자연을 돌보는 일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SDG 14번과 15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자연을 돌보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한국과 필리핀의 천연 자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저희 팀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 아이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물, 공기와 땅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르쳐주었습니다.

(Video clip)

우리가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더 많은 나무와 꽃과 채소를 심는 것입니다.
2. 야채 껍질 같은 생분해형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3. 퇴비를 식물을 위한 비료로 쓰는 것입니다.
4.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해치거나 사냥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1. 양치할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흐르지 않게 하고 물을 유리잔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2. 쓰레기를 물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3.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3R을 기억하면 됩니다.
Reduce(덜 버리고), Reuse(재사용하고), Recycle(재활용하기)입니다.

GCED Day

Cherry 저희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의 하이라이트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세계시민교육의 날입니다!

(Video clip)

세계시민교육의 날은 한국의 부산 대연초등학교와 필리핀 제 11 지역 파나보시의 리잘초등학교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는 한국 부산시 대연초등학교의 한국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100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사라지고 우리의 소중한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맹그로브 나무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시민교육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함으로써 더욱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합니다.

Cherry: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선생님이며, 이재원 선생님의 나무를 맡았습니다. 여기 선생님의 맹그로브 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Honey: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 선생님이며, 신선혜 선생님의 나무를 맡았습니다. 선생님의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다양한 물고기, 새우, 게, 갑각류의 이상적인 번식처가 될 겁니다.

Shella: 안녕하세요. 저는 쉘라 선생님입니다. 저는 정지혁 선생님의 나무를 맡았습니다. 여기 선생님의 맹그로브 나무가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응에 힘을 보탬 것입니다.

Dodie: 안녕하세요, 저는 두디 선생님입니다. 이경섭 선생님의 나무를 맡았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렬한 폭풍, 해일, 홍수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Johnna: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대연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All: 우리는 환경을 소중히 합니다. 우리는 SDG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을 지지합니다.

Johnna 각 나라마다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Honey 모든 국가들은 서로 각자가 가진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글로벌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Dodie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모두 지구의 지킴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욱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2. Korea - 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이명희, 담양중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대나무 숲과 대나무 공예품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담양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수석 교사 이명희입니다. 오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교류사업 사례를 발표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소개와 참여 교사 및 학생 소개, 둘째, 교육교류사업 준비 활동, 셋째, 온라인으로 실시한 수업, 마지막으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중학교와 대상 학교인 SMK Sungai Kertas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중학교는 총 10학급으로 203명의 남학생과 25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캄보디아의 교육 교류로 두 명의 캄보디아 선생님이 본교를 방문하여 수업 방법과 학생 지도를 실제 체험하였으며, 담양중학교 학생들이 캄보디아 학교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학교와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2020학년도는 몽골과 교류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교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학교는 말레이시아 학교로 SMK Sungai Kertas 학교이며 2019년에 이어 2021년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학교입니다. 세 명의 말레이시아 선생님, 세 명의 한국 선생님들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SMK Sungai Kertas 학교 학생 105명과 담양중학교 60명의 학생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교류 사업을 위한 준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의 미팅을 위해 사전에 수시로 회의를 하여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학교 선생님들과는 줌과 구글 미트 화상회의로 수업과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수시로 구글 미트, 카카오톡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업과 프로젝트 주제는 상호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 플랫폼은 구글 미트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 한국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먼저 파리드(Farid) 선생님께서 담양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을 배우고, 나타샤(Natasha) 선생님은 3학년 23명 학생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인 타파이(Tapai) 만들기 수업을 하였으며, 타파이를 만들기 위해 일주일 전에 미리 타파이를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수업시간에 타파이를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시니카(Masnika) 선생님은 23명의 3학년 학생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을 이용한 키팅을 실제로 바느질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남학생들이어서 바느질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만들었으며 예쁜 키팅을 완성하였습니다. 타파이어키팅을 위한 재료는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저희 담양중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의 매 시간 수업에 한국 선생님 세 분이 항상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선생님은 한글 복마크 만들기 수업을, 기미라 선생님은 팔빙수 만들기 수업을, 저는 한복 종이접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수업에 대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복마크 만들기. 학습 목표는 한글을 배우고 한글 복마크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수업 내용으로는 간단한 한글과 한글 놀이를 통해 한글을 배운 다음 한국에서 보내준 재료를 이용하여 한글 복마크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만든 후에는 패들릿에 학생들의 작품을 올리도록 하여 함께 공유하고, 수업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5명의 말레이시아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과 학생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진영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이미 한글을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빙수 수업으로, 학습목표는 팔빙수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사계절과 계절에 맞는 음식 소개가 있었고,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팔빙수 만들기 영상을 직접 촬영 편집하였으며 결과물은 패들릿에 올리도록 하여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참여하는 학생과 결과물의 사진입니다. 기미라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복 종이접기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목표는 한복 종이접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K팝과 K드라마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K팝과 K드라마 영상으로 한복에 대한

동기유발과 드라마 속 한복을 보고 다양한 한복의 종류를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한복 종이접기를 직접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종이접기가 익숙하지 않고, 45분의 수업 시간 내에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 둘 다 접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을 예상해, 사전 과제로 여자 한복 종이접기 영상을 보내 학생들이 미리 여자 한복을 접어봄으로써 본 과제를 익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은 후에는 결과물을 패들릿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수업 시간에 남자 한복 접기를 할 때는 학생들이 쉽게 종이접기를 잘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잘 따라서 종이접기를 하도록 영상을 편집하여 천천히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수업 이전의 여자 한복 종이접기 결과물, 수업 시간에 접은 남자 한복 결과물, 수업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상의 수업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과제에 주목하고 몰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 주제, 목적, 과정, 산출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의 주제는 ‘짧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레이시아의 전통극인 웨도우 플레이 쇼를 위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공연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은 첫째,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촉진하고, 둘째,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을 하며, 셋째, 한국과 말레이시아 여행 장소를 소개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넷째,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와 여행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역할은 한국 학생은 한국의 BTS와 말레이시아의 보보이보이(Boboiboy) 캐릭터를 이용하여 여행지를 소개하는 스토리라인과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이 스크립트로 연습하여 웨도우 플레이 쇼를 공연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프로젝트를 위한 GCED 주제를 선택하고 학생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여 이 노드 그룹을 만들어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다섯 곳의 여행 장소를 선택하여 한글과 영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원어민 선생님의 피드백을 거쳐 최종 드래프트를 완성하여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학생들 활동 모습과 스크립 예시입니다. 프로젝트 결과물, 즉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공연 연습과 공연 장면을 촬영한 후 유튜브에 탑재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말레이시아 학교 봉쇄로 공연 연습과 공연 장면 탑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느끼고 배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선생님들은 본 사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모든 수업을 함께 하면서 팀워크, 협력 등을 배웠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교육 교류 사업의 참여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상대국인 말레이시아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글로벌 공통 이슈, 세계시민교육 주제에 대한 탐구 조사하는 수업을 하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 SMK 순가이커타스 학교와 담양중학교 다문화과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1. Online Educational Activities of Satthasamut School, Thailand

Jutamaus Thorat, 태국 샤타사뭇학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샤타사뭇학교의 영어 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 매우 기쁘지만 동시에 벌써 그립기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었고 한국 봉담고등학교에서 좋은 동료들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저희가 이 교류 사업을 하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표 때에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를 4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최고의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왜 이 수업이 최고의 수업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그룹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바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 종료 이후의 후속 활동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인상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 중 최고의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태국 문화와 글쓰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중요 관광지와 볼거리들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가르친 후에 저희는 학습 프로젝트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저희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강의 관련 학생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결과이며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학교와 봉담고등학교 간에 진행된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강의들과 관련해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설문지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초청교사들의 수업을 토대로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고 표현했습니다. 15개 설문조사가 있었고 1에서부터 7까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이 교류 사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 교육교류사업에 따라 진행된 세계시민교육 수업이 매우 유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8부터 15까지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이며, 이것은 설문지 14에 대한 응답의 예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교수학습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설문에 대해 설문 참여 학생들은 대부분 '강하게 동의한다'와 '동의한다'의 선에서 응답했습니다. 즉, 이는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 관련 이슈로 진행된 교수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참여해온 이래로 많은 어려움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동시에 많은 유의미한 것들을 배우고 나섰으며, 이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의 목록입니다. 사업의 모든 국면 내내 저희는 변동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시아시피, 태국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2분기부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학습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만 했고 이는 분명히 저희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력 학교인 봉담고등학교와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사전에 많은 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가진 다른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청했습니다. 오로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희 모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를 배우며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및 수업들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약간의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은 '와이'(합장하듯 손바닥을 포개어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하는 태국 인사)로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 인사를 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거리는 최소 3,600km입니다. 굉장히 멀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문화가 달라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수업들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가르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분들,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발표까지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2. Onlin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양진영, 봉담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세계시민교육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초대해 주신 한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봉담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양진영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1학기 동안 함께 뜻을 모은 봉담고등학교 연구회 그리고 태국의 샷타사뭇학교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계시민교육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협력했던 경험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태국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과 연구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계획과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4명의 영어 교사 선생님들과 한 명의 지리 선생님이 마음을 모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봉담고의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다봉'연구회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학생들의 문화적 섬세함을 향상시키고 문화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 녹일 수 있도록 시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우리 학교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다수가 동질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지역사회 안팎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많아 일상 속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는 경험이 마련된다면 봉담고 학생들이 미래의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먼저 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의 수업이 샷타사뭇학교의 다른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수업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한옥에 관한 수업이었으며, 두 번째 수업은 청소년의 일상과 진로 목표들을 나누는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한국의 전통 게임에 관한 것으로 체육 수업과 융합하여 기획하였습니다.

문화 교육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융합을 시도한 첫 번째 수업의 몇 가지 장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태국의 Ja 선생님과 저의 좋은 협력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은 한국의 전통 건축 방식 한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태국 학생들은 목재로 된 DIY 한옥 제작 키트를 사전에 미리 소포로 수령하였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저와 함께 각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배우며 조립해 나갔습니다. 수업 첫 머리에 퀴즈를 통해 소개한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을 토대로 한옥의 황토벽, 마루, 온돌, 처마 등 친환경적 요소들을 발견하게 안내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수업 후반부에는 태국 Ja 선생님의 후속 수업을 통해 친환경 디자인 활동을 해보는 에코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태국 학생들은 태국의 기후와 자연 환경을 고려한 에코 디자인 결과물을 그려내 한국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봉담고의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그 디자인 작품 속 친환경 요소들을 발견해보는 활동을 하며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다시 태국 학생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가가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봉담고의 노력, 다봉연구회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설계한 학교 프로그램들을 정리해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활동은 시나리오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친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권의 비언어적 제스처들에 대해, 그 의미를 추론해야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연기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스피치 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봉담고 학생들이 연사로서 다양한 국제 이슈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태국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청중으로 참여한 온라인 메타버스

컨퍼런스 장에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에게 오해 없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의 피드백은 참가한 봉담고 학생들에게 성취감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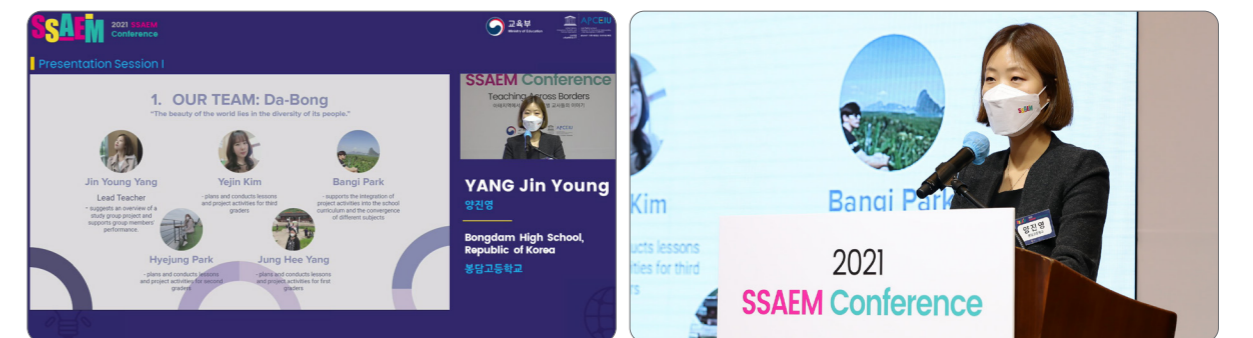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개할 활동은 학생들이 다문화에 관해 고민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에 이은 갤러리 워크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문화 감수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결과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5가지 언어로 표현한 학교 지도, 캠페인 포스터, 다양성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등을 만들고, 갤러리 워크 활동에서 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피드백 받으며 자신들의 작은 시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이나 지역 혹은 한국의 대중문화 등에 관한 브이로그(VLOG) 영상을 제작해 태국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오래 친구들의 실제감 있는 영상을 보고 인상 깊은 요소들에 대해 코멘트를 남기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의 자원들을 활용했습니다.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봉담고 학생들이 태국, 베트남 등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문화 자료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문화 다양성을 누리고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우리 다봉연구회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활동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참여한 설문 결과가 해당 웹사이트에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공식 교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한국 태국 수업의 후속 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놀이 도구를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태국 학생들이 교류 중 참여한 활동에 대해 한국 학생들이 코멘트를 보내는 등 교류 활동의 결과를 계속 의미 있게 활용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학교 외국어 신문에 한때 교육 교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야기와 후속 활동 결과물을 담을 예정이고, 이러한 나눔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성을 누렸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 나라의 사람들은 세계적 차원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온라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교육교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저희 다봉연구회 선생님들은, 개선된 온라인 교육교류 환경에서 세계시민의 공동 관심사인 GCED 이슈들에 대해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류 기반 구축을 다음 과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저희의 노력과 시도들에서 좋은 영감이 될 만한 점들을 발견하셨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1. Korea-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Keningau Vocational College

Saumon Bin Maliki, 말레이시아 케닝가우직업학교

안녕하십니까?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우몬 빈 말리키이며, 케닝가우 직업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지난 3달 간의 저희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역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연구회의 교사들을 대표하여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4월, 5월 초에 논의를 시작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한국 교사 및 학생들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은 5월과 6월 초에 진행이 되었으며 한국 선생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이후 6월과 7월 초에는 나머지 기타 활동들을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면 라면 챌린지, VLOG(브이로그), 웨비나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3달 간의 모든 성과를 웹 포털, 게시판, 이북에 기록했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모두 함께 개발했습니다.

저희의 첫 수업은 팀 리더이자 영어 선생님이신 칼리파 선생님이 5월 15일날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 경력만 거의 11년인 분입니다. 칼리파 선생님은 ‘원더풀 말레이시아’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 및 선생님들께 역사, 언어, 문화, 음식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칼리파 선생님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진행했으며, 수업 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패들렛을 이용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할 때 한국 학생들은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 날인 5월 15일이 마침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무니라 선생님이 5월 22일에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5년 간 요리를 가르쳐오신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현지 케이크인 체크 멕 몰렉(Cek Mek Molek)이라고 부르는 말레이시아 전통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진행되기 일주일 전, 조별 활동 수업 관련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및 플립 러닝 방식을 이용해 사전 녹화된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줌 플랫폼을 이용했고, 모든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 채 참여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부엌에서 요리 도구 및 준비된 재료를 갖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무니라 선생님이 실제로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하며 요리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요리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잘 모르는 요리를 최선을 다해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패들렛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체크 멕 몰렉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5월 28일에 제가 진행했습니다. 저도 요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19년 간 학생들에게 기술 및 직업교육 차원에서 특화된 요리 수업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업 전에 데모 영상을 만들어 야채와 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와 패들렛에 올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선생님의 지도 하에 함께 야채와 과일을 깎았습니다. 당근과 오이를 이용해 어떻게 아름다운 꽃과 나뭇잎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어진 1시간 동안에 과일과 야채를 깎는 작업을 모두 끝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 자신이 VLOG(브이로그)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브이로그를 만들고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습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 블로그를 뜻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 영상 형태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학생의 하루 일과와 관련된 1분 분량의 영상을 녹화하고 만들게 했습니다. 이를 한국 학생들과 공유했고, 저희의 포털에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활동의 몇 가지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두 나라의 라면, 말레이시아 대 한국’입니다. 저희 학생들의 활동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이며,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에 라면 챌린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라면 챌린지에서 학생들은 각자 자기 국가의 라면을 조리한 후에 협력 국가의 라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만의 스타일과 레시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챌린지 마지막 주에 학생들은 서로가 만든 라면을 공유했습니다. 이 활동은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활동을 또 인포그래픽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책에는 모든 사진과 레시피, 조리 방법,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만든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라면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은 웹 포털과 게시판을 만들어 활동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활동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교류사업을 알렸습니다. 각 수업 이후에 저희는 게시판을 만들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진행한 흥미로운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교육부 관계자들과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후속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천 공항공고등학교, 케닝가우직업학교 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한국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든, 저희는 인천공항공고등학교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둘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날’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협력 국가의 학교에 자문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한국의 날’을 진행하여 제대로 한국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말레이시아 교사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더욱 많은 웨비나를 준비해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번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웨비나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웨비나는 온라인 세미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라면 챌린지 활동을 바탕으로 보드게임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저희 활동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4-2. 2021 SSAEM - KOMTEP

김성희, 인천공항공고등학교

안녕하세요. 2021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인천공항공고등학교 김성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거리의 단절로 자칫 어려울 수 있었던 교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함께 미래를 향한 세계시민교육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교류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국 학생들이 함께한 팀 프로젝트인 라면 프로젝트와 에코 브릭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사 웨비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우리 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학생 활동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1장, 이번 교류에 참여한 학교 소개입니다. 이번 교류에 참여한 학교는 인천공항공고등학교와 말레이시아 케닝가우직업전문학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천공항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인천공항공고등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위치한, 전교생 약 750여 명의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지리적 문화적으로 세계문화 교류 활동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교류 활동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온라인 세계시민교육과 말레이시아 문화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은 이번 교류를 함께 한 말레이시아의 케닝가우직업전문학교입니다. 말레이시아 케닝가우 지역에 위치한 고등직업교육 학교로, 2017년부터 국제 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입니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훌륭한 학생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빛내줬으며,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2장, 이번 교류 활동의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교류 활동을 할 때 저희 교사들의 고민은 “어떻게 온라인만으로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까” 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학생들, 또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학생들을 수업에서 하나로 묶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론-피드백-실습’의 3단계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 이론 수업은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화면을 모두 켜고, 중간에 발표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소규모 회의실을 활용한 토론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활용하여 교사의 피드백 활동, 학생들 간의 토의 활동을 유도하였고,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실습을 진행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이론 수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기 수업과 결합하여 학생들의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이론을 실제 만들어보는 활동을 적용함으로써 수업의 이해와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과 강누리 선생님의 문화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사진은 줌 수업의 일부입니다. 위 사진은 한국의 사계절 변화를 의복의 변화와 연관지어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래 사진은 학생들과 퀴즈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퀴즈 수업, 토론 수업, 팟캐스트를 이용한 활발한 후속 활동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신 강누리 선생님께서는 수업 후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수업 열정에 놀랐고, 세계시민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한 활동이었다는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학과 송인숙 선생님의 세계 기후변화 수업입니다. 현재 느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주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수학적 관점에서 그래프 수치 변화를 함께 분석하는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 문제에 관해 세계적 공조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수업으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업 후 선생님께서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열띤 관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세계시민의식 수업입니다. 수업은 국어과 김성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세계시민교육을 융합한 수업을 계획했으며, 한글과 춘향전에 담긴 인류애와 평등 의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팬데믹 시대, 인종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한국의 문학 작품과 한글에 담겨 있는 평등의식,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론 수업 후에는 영어를 한글로 바꾸어 한글 이름 도장 만들기 실습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팬데믹 이후 세계 평화와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수업 후 담당 교사는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인권 평등에 대한 통찰력에 감동받았으며, 한글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에 놀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의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첫째는 왼쪽 사진과 같이 교실에 모여 텔레비전 송출을 보면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학생들이 사우몬 선생님의 말레이시아 전통 카빙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실습 수업인 만큼 한국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무니라 선생님의 말레이시아 전통음식, 책몰렉 만들기 수업의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본인 집에서 선생님의 요리 수업을 실시간으로 따라하며 음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온라인 실기 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더 가깝게 느껴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3장 팀 프로젝트와 라면 챌린지, 그리고 에코 브릭스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 간의 상호 문화교류였습니다. 공통의 화제를 찾아 세계적인 보편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적으로 적용해보는 활동을 통해 세계 문화를 이해해 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라면 챌린지는 학생들이 서로 좋아하는 라면 레시피를 소개하고 외국의 라면을 선택해 따라 만들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서로의 비법을 소개하고 라면을 현지화하여 요리로 소통해 보았습니다. 또 요리 후에는 라면 비닐봉지를 활용하여 에코 브릭스를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지구 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 사진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나만의 라면 요리법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른쪽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한국의 라면을 말레이시아 방식으로 요리해 보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라면 봉지를 활용한 에코 브릭스 업사이클링 활동입니다. 세계화와 보편문화를 체험하고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4장, 웨비나 교사 교류 활동입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교사로서 겪는 어려움은 말레이시아와 한국 모두 다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닥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웨비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본교 전역대 교감 선생님과 제가 연사로 나서 온택트 시대 한국의 블렌디드 러닝을 소개했습니다. 학교의 방역과 운영, 블렌디드 러닝 수업 방법 등 말레이시아 관리자분들과 교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약 150여 명의 선생님들의 열띤 참여와 한국 및 말레이시아 교육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관계자분들의 격려로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 5장, 내년도 학생 활동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참여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코로나로 막힌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온라인 교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 속 학생의 감사 편지를 보며, 우리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사업이 학생 개인의 시민성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내년에도 학생 중심의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사업으로 내딛은 작은 한 걸음이 세계시민을 향한 큰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공고등학교의 교육 교류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아태 지역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온라인 교류는 세계시민교육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를 합하여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5. Sirirattanathorn School

Rujipa Boonsri, 태국 시리랏타나톤학교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시리랏타나톤학교의 루지파 분스리라고 합니다. 이 교육교류사업에 저희 학교에서는 2명의 영어 선생님, 1명의 음악 선생님, 1명의 수학 선생님, 1명의 사회 선생님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대전 동산중학교와 교류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저희가 온라인 교육교류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 알아가기’입니다. 수업은 22명 학생을 대상으로 비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태국 교사들이 태국에 대한 자료를 한국에 전달했고, 덕분에 학생들은 태국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 한국 학생들은 카훗 게임 플랫폼에서 퀴즈를 풀고 태국에서 온 선물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으로는 ‘태국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버킷 모자’로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 이어 줌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태국에 대한 영감을 바탕으로 버킷 모자를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망고스틴, 툽툽(태국의 교통수단), 태국 사원들을 그렸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 또는 친구, 가족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자신만의 버킷 모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저희는 ‘콘(Khon)’을 가르쳤습니다. ‘콘’은 일종의 탈춤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태국의 무형문화재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사진과 같이 태국의 전통 붉은 바지를 입고 ‘콘(Khon)’ 주인공들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저희는 교육교류사업을 위해 진행된 수업들 중 이 수업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다양성’을 주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수업을 통해 한국 학생 및 교사들과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했습니다. 학생들은 ‘콘(Khon)’이라고 하는 이 전통 춤의 동작을 연습할 수 있었고, 태국의 전통 붉은 바지를 입고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친구들끼리 우정을 더 나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저희는, 음식을 통해 한국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 세계, 한국 학교에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논의하고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2학년 학생 32명이 온라인으로 공유된 3개 영상을 통해 음식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 조사를 했으며, 3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음식과 관련된 문화 다양성, 둘째는 각 나라의 국민 음식, 셋째는 전 세계의 학교 급식입니다.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94%가 세계 음식의 다양성에 대해 세계시민교육 실행의 측면에서 그 어떤 장벽 없이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관련 문화적 다양성은 특히 SDG 목표 중 ‘건강과 웰빙’ 및 ‘기아 종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다양성을 통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공동 이익과 인류애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들의 작품물입니다.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는 학생들이 저개발 국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점심 급식을 직접 설계하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진도 찍고 자신들과 같은 학생들을 독려하는 글 등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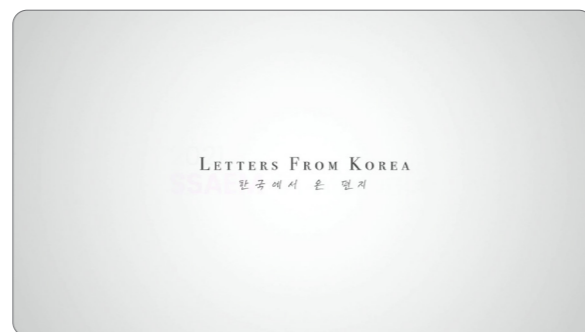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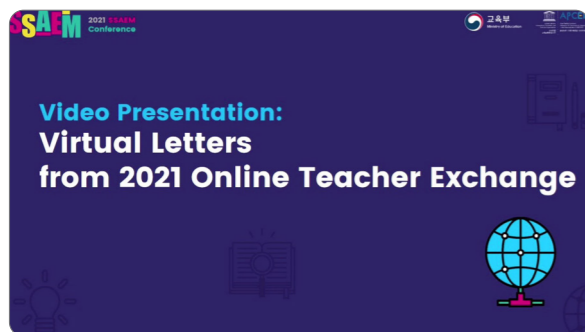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한국 교사분들이 진행해주신 수업으로서 모두 비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태국 학생들이 전부 원격으로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모든 수업 영상 및 학습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의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학습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푸른 하늘에서 온 특별한 선물’입니다. 줌으로 진행된 이 수업을 통해 태국 학생들은 한국 전통 색산인 오방색의 의미와 더불어, 자연 염색 방법을 통해 청색으로 천을 어떻게 염색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학생들의 활동 및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 ‘한국 문화 유산을 활용해 나만의 자, 에코백 만들기’입니다. 태국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배우고, 한국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을 활용해 자신만의 자, 에코백을 꾸몄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한 것이었으며, 태국 학생들은 다양한 한국 전통 놀이의 종류는 물론 영상을 통해 어떻게 놀이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제기차기, 비석 치기, 공기가 수업에서 다뤄진 전통 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제가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해외 국가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계획 및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동료 교사들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한국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자료 등에 대해 서로 활발히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전 동산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교류하며 다른 문화권의 교사들이 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1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 학교 인터뷰 영상 상영



6. 사례발표 II

일시 | 2021. 10. 28. (목) 15:30 ~ 16:30 (60')

사회 | 이승희 아나운서

국내 및 해외 교사 리스트 |

번호	이름	소속	발표 제목
1	장병철	한양대학교 컴퓨터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	From Attention To Action
2	Hadi Sukoco Sumarya	인도네시아 알라미디아중학교	The Project "Developing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for Global Education in Korea"
3	이정현	서울대림초등학교	Sharing the Faith of Mustard Seed
4	Bun Phallin	캄보디아 오브라옥중학교	Sharing Experiences in "Developing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1. From Attention To Action

장병철, 한양대학교 컴퓨터이셔널 사회과학 연구센터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는 장병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당시 서울로봇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2016년 몽골에 파견갔던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번 2021년 파견교사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어떤 내용의 교수 자료를 만들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2학기에 몽골의 교사 교류 사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몽골 외곽에 있는 울란바토르 53번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이 학교는 초원에서 유목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좀 어색했는데요. 그곳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곧 익숙해졌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교육 활동뿐 아니라 그곳 학생들에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제가 한국에서 가르치던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해서 공부를 그곳 학생들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학생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간 다양한 바퀴 로봇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로봇과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파견된 한국 선생님 즉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이 갔었는데요. 두 명에서 같이 진행하였는데 나중에는 그곳 현지 컴퓨터 관련 선생님들이 로봇에 관심이 많고 몽골 학생들도 적극적인 로봇 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즉 K12라고 부르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같이 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드론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주 1, 2회 정도 하자고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드론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신 후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몽골에서 만난 학생들에 대한 느낌은 참 활기차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즉 우리나라에 또는 자기들 문화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요. 특히 저와 함께 로봇과 드론을 배울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편이었고요. 특히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좀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학교 교사들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이끌 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공개 수업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의 활동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16년 저와 함께 만든 로봇 동아리. 제가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100일간의 활동을 끝내면서 로봇 동아리를 만들고 그곳 선생님과 함께 로봇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 로봇 동아리반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요즘도 저와 함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원격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주 줌이나 페이스북 같은 원격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곳 학생들과 만나서 로봇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파견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몽골에서 복귀한 후에 제 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다문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을 대할 때 교실 전체의 학생들을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역량을 조금 갖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했던 과목이 컴퓨터인데요. 컴퓨터 과목은 다문화 가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까지 어떻게 하면 제가 가르치는 거 컴퓨터 수업을 함께 모든 학생들이 잘 어울려서 유니버설디자인적인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언어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자료를 처음 제가 시도한 것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을 위해서 다국어, 뭐 영어나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몽골 학생들도 있고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필리핀 학생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언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나 몽골어 등으로 번역해서 제공하였고, 다문화 교류는 아니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영상물을 만들거나 소리로 전달해야 되는 자료들을 텍스트로 바꾸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구글닥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구글닥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제 음성을 그대로 번역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한 번 수업 시간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요즘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몽골에서 만난 학생들에 대한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활기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돌아와서 그 몽골에서 학생들 만났던 활기참 그리고 그 세심하게 보여주는 그 역량을 배워서 세계와의 교류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많은 교사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게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다문화 수업을 어떻게 수용하여 진행하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불어 저희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마이크로비트라는 아주 작은 장치이긴 하지만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코딩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교에 방문하신 외국 선생님들에게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짧은 경험이나마 한국 학생들과 수업을 만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그들의 나라와 나라 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선생님과 수업하는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다문화 학생이 인근에 많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근처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한 학급의 학생들 중에서는 20명 중에 서너 명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가명입니다마는 사무엘이라는 학생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파견 활동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만난 학생인데요. 제가 만약에 파견 활동을 하기 전이라면 그냥 다문화 학생,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 한 명이겠거니, 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파견 활동을 한 이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더 살펴보게 되었고요. 제가 만난 그 사무엘이라는 학생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학생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면 교사가 질문을 할 때 그냥 예라고 대답하거나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도 잘 알아듣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고 또 수업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예'라고만 대답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는 경우가 많았고. 스크린에 있는 그림이 실제 사진인데요. 실제 성격이 굉장히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위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할 컴퓨터 시간마다 학습 자료를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무엘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무엘이 익숙한 언어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학습 자료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언어로 제공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서 온 학생인데요. 필리핀의 고유한 언어인 타갈로그어하고 영어를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참여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사무엘을 포함해서 영어를 쓰는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작은 도움만으로도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주변 학생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사귀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무엘에게 준 도움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움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가지게 했고요. 이런 사무엘의 변화를 보면서 이후에도 제가 담당하는 학급에 베트남 학생이나 아니면 몽골에서 온 학생들이 생기게 될 때,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문화에 맞는 또는 그들의 습관에 맞는 그런 학습 자료를 좀 더 제공함으로써,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이해의 시작은 작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몽골 파견은 제게 개인은 모두 다르고, 특별한 학생들에게 관심과 이해라는 역량을 조금 더 키워주는, 작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파견 이후에 그 경험을 살려서 몽골과 다양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로봇에 관심 있는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대회도 만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면서 학교 간 자매 결연도 맺고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교류와 서로의 이해를 멈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저희 국제 APCEIU 교사교류팀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류하는 나라들과 콘텐츠로서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교류 대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함께 배우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메시지는 우리 다문화 사업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담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아태 지역 학생들과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습 콘텐츠가 다문화 교류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동기를 크게 만들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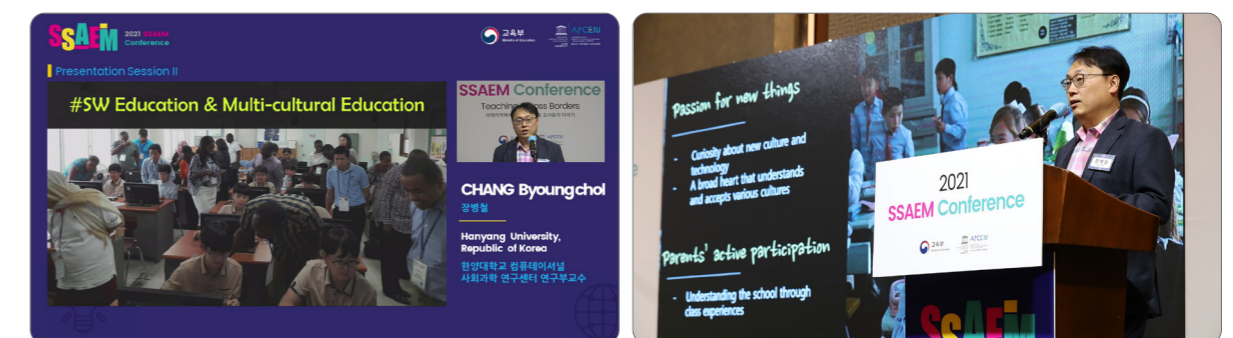
저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다문화 교류 활동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고유한 문화유산, 문화재를 알아보는 인공지능 학습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보았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을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는 경복궁, 조선시대 왕궁으로 유명했던 경복궁이구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앙코르와트,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방콕의 왕궁, 제가 근무했던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간단 사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산 어거스틴 성당 등이 그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는 이런 문화유산을 인공지능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중고등학생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티처블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틀은 인터넷에서 각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진을 모으고 티처블머신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각각의 문화유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유산의 역사도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 탐색을 통해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실제 각 문화재 사진 열 장 정도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아주 소중한 콘텐츠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활용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잘 하는 것 중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게 있는데요. 각 나라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 어떻게 다른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인공지능은 얼굴을 인식하셔서 이 얼굴 형태는 한국 사람, 이 얼굴 형태는 베트남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잘 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사실 얼굴 인식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얼굴을 분석해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각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다른지를 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에 나타난 얼굴이 어느 나라 얼굴인지 어느 나라 사람 얼굴인지를 인공지능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게 두 번째 콘텐츠였는데요. 우리가 서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아태 지역 국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특징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그리고 태국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여러 사진을 입력해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인공지능이 잘 분류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마지막 활동인데요. 여기 게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이번 콘텐츠 제작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가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 열심히 분류해주지만, 저 분들은 모두 다 한국 사람입니다.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거든요. 태어난 곳은 모두 다르지만 이제 모두 다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인공지능 기계도 저렇게 생긴 분들을 한국 사람으로 분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류하지 못하고요. 태어난 곳이 모두 다른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엄연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국분들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살고 있으면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캄보디아의 국민으로 살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 국민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얼굴의 생김새를 구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관계없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세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 담고 싶은 제 생각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외모의 차이와 국적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해를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파견 당시 활동과 파견 이후에 지속적인 교류 활동, 그리고 COVID-19 시대의 교류 방법으로 만든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되돌아봐도 파견 활동은 제 삶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제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서 다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몽골에서 만났던 학생들과 그들 선생님들이 지금도 매우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The Project “Developing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for Global Education in Korea”

Hadi Sukoco Sumarya, 인도네시아 알하미디아중학교

존경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및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관계자 여러분,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에 평안히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수코코 수미라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알하미디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었으나 지금은 알하미디아 고등학교 교육부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 SSAEM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로부터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18년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던 교사로서,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온라인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해 저만의 혁신적인 교수법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과 문화적인 요소들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과과정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팬데믹 시기에 저희의 교육 역량, 글로벌 역량, 온라인 강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사진들이며,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저희가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으며, 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맡은 과목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며, 둘째는 연령별 주제에 맞게 실용적으로 세계시민교육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핵심 학습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효과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학습 강화를 위해 교수법과 툴을 통해 과학과 예술에 기반한 탐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습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구와 도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제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우선 인도네시아의 무형 문화유산 중 이 바틱(Batik)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화간 교류이며, 이는 서로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셋째는 철학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의 역사, 가치관들은 의미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이 주제를 갖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타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정체성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사와 학생의 역량 강화인데, 지식 측면에서 특히 역사와 같은 분야에서는 정보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문화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습자의 역량 구축 강화인데 특히 지식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 같은 분야는 다양한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교육과 문화 주제로 한국 교실에서 진행된 동영상 강의에 대한 학습 결과물사진들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초청 교사로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프로젝트 참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에 세계시민교육과 문화적 요소들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습 활동을 위해 여러 창의적인 학습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제가 글로벌 관점을 갖게 된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이로써 저는 다른 이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문화적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ICT 및 툴 사용에 대한 것인데, 한국은 교육 분야에도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2018년 본 사업에 참여했던 당시에, 다양한 첨단 ICT 및 툴을 사용하는 학교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도 21세기에 맞는 교수학습을 위해 콘텐츠 내용이나 안전

및 보안 이슈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어떻게 ICT와 툴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강의에 관심을 갖고 수업 주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사가 제작한 창의적인 학습지 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팬데믹 시기에도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모든 과목은 물론 교육과정에도 통합될 수 있으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교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차시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자료를 활용해 많은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은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수학습의 혁신에 대한 것입니다. 교사로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의 동영상 강의를 본 후에 진행한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또 다른 경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성 높은 문제나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둘째는, 세계시민의식 차원에서 핵심 가치를 창출하고 종교, 문화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첫째는 화학 수업이고 둘째는 교육, 문화유산과 함께 융합한 물리 수업이며, 마지막은 생물 수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결혼을 소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3. Sharing the Faith of Mustard Seed

이정현, 서울대림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림초등학교 교사 이정현입니다. 먼저 2021 SSAEM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하반기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면서 APCEIU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올해 2021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필리핀 마닐라에 말라본 지역에 위치한 포트레로 초등학교에 파견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 만났던 필리핀 학생들, 선생님들, 그 외 인연을 맺었던 좋은 분들의 따뜻함과 열정들이 제 삶의 값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겨자씨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 나누기’인데요. 이것은 2016년 필리핀 파견 때부터 시작하여, 이후 홍콩 한국국제학교에서 그리고 한국 학교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육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잠재성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더 작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겨자씨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은, 각 개인의 힘은 미약해 보이지만 다양한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색깔을 충분히 빛내며 참된 가치관을 함께 추구해 간다면, 보다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저의 교육 신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제가 만나는 국내 또는 해외 학생들 모두 각자 자신만의 값진 씨앗을 품고 있으며, 세상은 그들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 멋진 숲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사로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마음가짐을 안고 출발했던 필리핀 파견 당시의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파견 전 영어 교육 분야 석사 과정에서 문화 간 비교 자료를 활용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 당시 모란(Moran)의 선행 연구에서 시사점을 많이 얻었는데요. 모란은 문화 수업에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의 문화적 경험을 통한 문화 수업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이 Cultural Knowings Framework 인데요. 노잉 어바웃(Knowing About), 노잉 하우(Knowing How), 노잉 와이(Knowing Why), 노잉 원셀프(Knowing Oneself) 네 가지 요소를 문화 수업에서 대화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찰없이 일방적으로 문화 정보만 얻는다면, 다른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본인이 가진 편견으로 다른 문화의 독특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컬처럴 인포메이션(Cultural Information)이나 비헤이비어(Behavior)에 대한 학습과 함께, 문화에 숨겨진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모란은 노잉 어바웃, 노잉 하우, 노잉 와이, 노잉 원셀프, 네 가지 단계가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문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인 문화 학습자로서 인터컬처럴리티(Interculturality)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문화 수업을 하기 전 파견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한국 문화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한국 문화는 무엇인가? 또는 소개하고 싶은 자국 문화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치우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하게 될 경우, 수업에서와 달리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에 대해 성찰해 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잉 어바웃과 노잉 하우의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인 수용, 또는 거부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화 형상에 숨겨진 가치나 신념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 본인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문화 학습에 대한 학생 대상 사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인 파견 교사로서 한국 문화 수업을 할 때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필리핀 문화의 관점에서 수업 내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활용했던 수업안의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한국의 동요 ‘다섯글자 예쁜 말’을 배워보면서 자주 사용되는 듣기 좋은 한국말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습 목표를 다섯 글자로 된 6가지 듣기 좋은 한국말을 읽고 쓰기, 이 말이 들어 있는 동요 부르기, 필리핀의 언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 듣기 좋은 말이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 생각해 보기로 정함으로써, 문화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노잉 와이와 노잉 원셀프의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화에서 비슷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필리핀 타갈로그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된 다섯 글자 예쁜 말 6가지를 읽고 쓰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문장들로 만들어진 다섯 글자 예쁜 말이라는 동요를 함께 배웠고 타갈로그어의 듣기 좋은 말과 한국의 듣기 좋은 말들에 어떤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한국어와 한국어로 된 노래를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품고 있는 사랑, 배려, 감사 등과 같은 공통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한국인 교사로서 필리핀 학생들에게 문화 수업을 할 때 하고자 했던 역할들이 작게나마 성취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알고 싶은 필리핀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질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필리핀의 문화를 본인이 잘하는 것을 통해 소개하고 싶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인 세계시민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견 교사로서 타국에 와서 문화 교류 수업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도 미래에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나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같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필리핀에서의 경험은 교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사람들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지구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연대감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고, 제가 가진 한국인이라는 독특성이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듬해 홍콩 한국 국제학교에 근무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그곳에 재외 한국 학생들과 교육 활동을 하면서 내 나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 다른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언어 교육에도 적용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던 당시 학교에서 탄탄한 모국어 학습은 외국어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당시 학급 담임을 함께 맡고 있던 원어민 담임선생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어의 표면적 요소들은 각기 다르지만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고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국어로 학습하며 독특한 인지와 사고의 과정을 영어 학습에도 활용하면서 사고의 확장과 함께 영어 학습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연구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먼저 한국 교과서의 국어 과목에서 시를 읽고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시인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볼 수 있다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감하는 시 읽기 법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을 영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영어로 된 동시를 읽고 그곳에 드러난 시인의 마음을 찾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국어로 학습하며 발달시킨 사고의 과정들을 언어가 달라지더라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며,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부터 이중 언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탄탄한 모국어 학습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의 문화행사 때 파견 후에도 온라인으로 소식을 접하고 있던 필리핀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을 얻어 학급 학생들이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고 공연을 함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학교로 복귀해서 생활하던 중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교류가 제한되는 만큼 온라인 교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디지털 세계화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교류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사이버 폭력,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진 가짜 뉴스로 인한 차별, 인종 간의 갈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급속하게 늘어난 문화가 온라인 교류를 마주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올린 sns의 한 마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서 건강한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개인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 자란 학생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1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또 한번 겨자씨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은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동들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감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2021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의 제 수업 주제는 ‘디지털 세계화 시대에 디지털 발자국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바람직한 디지털 발자국 남기기’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이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 놓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도 디지털 발자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발자국 자체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은 디지털 세계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학습 목표로, 지식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세계화 시대에서 디지털 발자국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이고, 정서적 측면의 목표는 ‘디지털 발자국에 따른 경각심과 함께 더 나은 디지털 세계를 위한 개인의 책무성을 깨달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적 목표는 ‘디지털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디지털 발자국의 중요성을 익히고 바람직한 디지털 발자국 남기기를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무성히 자라듯 디지털 세상에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건강한 문화 교류를 이어가면,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디지털 세계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확장되어 갈 것이며, 구성원의 올바른 자아 인식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교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Not all of us can do a great things. But we can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세상을 바꾸듯,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이 디지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아태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업하려고 합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저의 관심이 필리핀 파견으로 이어지고 그 파견 경험이 국제학교 파견과 아태지역 학생 대상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 참여로 확장되었듯이, 저도 하나의 겨자씨로서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 Sharing Experiences in “Developing Online Educational Materials”

Bun Phallin, 캄보디아 오브라옥중학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관계자 여러분, 청중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분 팔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19년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도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 경험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는 본 사업을 팬데믹 가운데에도 계속 이어나가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다섯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 수업의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하게 된 목적, 교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된 교훈, 프로젝트에 대한 인상과 감상입니다.

우선, 제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으로부터 한국 학생들에게 두 개의 영상으로 온라인 교수자료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매우 기대되었지만 불안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고, 당시 굉장히 바쁘게다가 자신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는 국제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제 자신을 노출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학생들이 제가 만든 교수자료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새롭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자신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및 현지, 해외 교사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에 활발히 기여하고 싶었고, 이것이 각자 국가의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팬데믹 이전에는 모든 교류 교사분들이 한국으로 파견되고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위기로 인해 아시다시피 직접 해외에 나가 학생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류 교사들이 파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이 지속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온라인 교수자료가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뉴노멀과 교수방법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내용 선택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내용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관심, 제 전문성,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들을 고려했고, 한국의 과목 및 교육과정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태교육원 측에 6개 주제를 제안했고 마지막에 2개가 채택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의 역할을 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2가지 주제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첫 번째 수업은 ‘기본 인권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드리면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간의 기본 욕구, 둘째는 인권의 정의, 셋째는 우리의 권리, 넷째는 사회 속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수업에서 저는 많은 사진과 자료는 물론 사례,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에서 한국어로 자료 번역을 해주신 박새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번역되어 제공되었기에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수업을 실행하며 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외국인 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 사회의 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권이며, 한국과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인권 교육의 수업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와 한국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을 비교해야 했습니다. 학교의 환경과 활동,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여러 놀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며 저는 학생들이 캄보디아와 한국 학교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랐으며,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지를 보고 실제 그 놀이를 해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의 교육교류사업의 참여 경험이 이번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놀이를 하고, 학교에서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수 방법론들을 활용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원초등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쉬는 시간에 보면 학생들이 정말 놀이를 좋아했으며 어릴 때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견했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몸싸움을 하고, 서로 쫓아다니거나 심지어 괴롭힘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재밌거나 괜찮다고 여기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저는 이를 기본 인권 교육과 접목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혹은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이러한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학생들이 “캄보디아 친구들은 어떤 놀이를 해요?”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놀이들을 가르쳐주니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캄보디아 학생들의 놀이를 하면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캄보디아에서 학생들이 실제 놀이하는 모습을 찍어 수업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교훈들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사실 준비할 때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도 하고 도움을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문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뉴노멀 시대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 서서 뭔가를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고 전문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태교육원 사업 담당자분들, 교장선생님들, 동료분들, 학생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자분들과도 많은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배웠던 또 다른 것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상권이나 인터넷상 권리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니 사진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때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받은 인상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 교수자료를 제작하는 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부 및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사분들께도 이와 같은 아태교육원의 활동에 계속 참여해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교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교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제 발표가 이 프로젝트에 앞으로 참여하실 다른 교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발표

일 시 | 2021. 10. 28. (목) 16:30 ~ 16:50 (20`)

발표자 | 박순용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인 연세대학교의 박순용 교수입니다. 저는 연구진들과 함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참여 교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제교육교류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세계시민교육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역량 향상에 일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은 다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실제 이 사업을 통해 국내외 참여 교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입니다. 둘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미 구성에 어떠한 인식의 전환 또는 강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결국엔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기초하여, 이번 연구의 목적은 APCEIU가 추진해 온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관련된 질적 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이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연구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던 연구 문제들입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참여 교사들의 경험은 교육활동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입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참여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참여 교사들의 그 참여 경험과 교육적 맥락 사이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사업 진행 중과 그리고 이후에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있는 관여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총 22명의 교사분들이 저희 연구를 도와주셨습니다. 대부분은 1:1 심층 인터뷰가 진행됐고, 3명의 교사께서는 저희가 보낸 질문지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으로 1시간 정도 1:1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팀을 나누어서 두 가지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팀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하여 해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교사를 인터뷰했고, 다른 한 팀은 7개국에서 오신 해외 초청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에 파견된 국내 교사분들과 한국으로 초청을 받은 해외 교사분들에게 각 나라에 방문했을 때 소감은 어땠는지, 새로운 학교와 또 새로운 문화에는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전반적인 경험이 어땠는 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파견교사들의 첫 인상은 대부분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견교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하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학생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과 관계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등 많은 것들이 새로웠던 것이죠. 파견교사들은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험에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박한 한국 학교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잠시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쉼과 트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즉 일상과 매너리즘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익숙한 한국의 교육 현장으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나서, 한국의 교육을 낯설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 교육적 철학, 커리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에서 교사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추구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해외 초청 교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국에서 오신 해외 초청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들도 다 달랐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도 다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학교들은 환경도 좋고, 자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교권과 효율적인 교육 예산의 집행, 장애학생에 대한 처우와 효율적인 시간 관리도 인상깊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방대한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생님들은 많은 업무량을 처리해내고 소화해 내는 것을 보고 크게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한국 선생님들이 여러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국가에 적응을 하면서 받았던 첫 인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파견교사와 초청교사 모두에게서 발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경험들은 문화적 차이만 느낀 것이 아니라, 문화 충격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파견 교사들은 첫 인상과도 관련이 있는데, ‘파견된 국가의 시설이나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에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상에서 다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일화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학교 밖에서 다문화를 매일 일상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렸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한국은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파견국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내일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보다는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 해결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고,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에 초대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높은 시민 의식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질서 있고 체계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느꼈다며 매우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APCEIU 관계자의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APCEIU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교사들은 ‘APCEIU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의 가장 중요한 매개자’라며 ‘이러한 중간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피드백을 했습니다.

해외 초청교사들은 ‘APCEIU 관계자들이 단순한 관료가 아닌 한국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초청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들, 한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APCEIU 관계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피드백과 함께 문제가 있을 때, 또 도움을 청할 때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대표자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파견교사들은 현지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낮은 것에서 낮은 것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초청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밝고 선생님들의 수업 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좋은 조력자’며, 수업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높을수록 조금 실망을 하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미 기존에 너무나도 학습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초청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 알게 되었고, 부정적인 문제만 인식하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관점의 전환을 보였습니다. 학교 안에서 또 밖에서도 학습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료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동료교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해외로 파견되는 교사들입니다. 보통은 두 명의 선생님이 한 쌍으로 같은 학교로 파견됩니다. 파견교사들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 동료교사와의 호흡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파견되기 전 단기간 동안에 호흡을 맞추며, 함께 현장 속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료교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동료교사는 ‘결국 식구가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동료교사들과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지내지 못했고, 그런 경우에는 거리를 두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견교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현직 교사와의 관계입니다. 파견교사들은 ‘현직 교사에게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인용을 한다면 A부터 Z까지 모두 도와주는 관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주로 영어로 소통을 하지만, 언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역사들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견 교사분들께서 이 통역사들이 도움이 되었고 통역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은 의지가 되어서 일상생활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으며 협력교사 및 통역사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청교사들의 답변으로는 한국 협력교사들은 매우 전문적이며 책임감이 있어서 큰 의지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국 교사들이 다소 부끄럽고, 냉담한 듯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한국 교사분들께서 업무로 바쁘셨고, 이로 인해서 해외 초청교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는 점과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할 수 있는 교류의 정도가 제약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APTE)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파견교사의 참여 동기는 새로운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이미 국제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던가, 여행에 관심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얻기를 원하셨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권에서 가르치는 경험을 갖기를 원하셨으며, 또 새로 자신의 전문적인 생각과 교수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문화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현재의 문화에 회의를 느끼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초청교사의 참여 동기를 보면 이미 한국 문화와 한국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한국의 현지의 교수 방법들을 익히고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견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실에서 한국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대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되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 흥미로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교사가 원어민 교사로 생각이 되는데, 본인들이 파견국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파견교사분들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교과서보다 현실적으로 각색하고 새로운 문화적인 요소를 적용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류를 학교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배정되는 학년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학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초등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로 배정이 된다는 할 경우, 갑작스러운 변경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지요.

초청교사들의 경우,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에는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정도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수학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서 수업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매우 어렵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후에 국내 파견교사와 해외 초청교사 모두 후속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파견이 되었던 학교와 본인의 소속 학교를 연계하여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APCEIU측에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이후의 후속조치를 통해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이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던 출신 교사들 간에 모임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교사들의 경우, 그들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서 곧 이 책이 출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새로 한국으로부터 배우게 된 교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본교, 그리고 수업 활동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여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APTE)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입니다. 이는 개발 단계와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양국의 상황들 간에 자원이나 기대수준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적인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교육 도구들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교류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수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험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거의 항상 다수로서의 경험, 사회에서 주류의 경험으로 살았다면 파견 국가에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면 소수자 그리고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교육철학이 달라질 수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학급에서 이해했던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사로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성장했는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는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멈춰서 교사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사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사로서 다음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을 교실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교과서를 읽고 해당 내용을 세계시민교육의 메시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발전시키고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참가교사들의 제안을 통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참여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도출해 볼 수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본 슬라이드의 나와 있습니다.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제입니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행되는지의 문제입니다. 파견을 가기 전에 파견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데 대한 체제 그리고 준비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파견교사분들께서 현지에 가서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좀 더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소와 기간의 문제인데요. 많은 참여교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이면 현지의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못하고 적응할 때쯤 되면 짐을 싸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소한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경험을 하게 될 경우, 학교의 내용과 학교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견 장소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 관련 경험만 갖게 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여러 학교에 대한 경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학교 또는 다른 학년도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통해 제안을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업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사들은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우정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다른 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친구들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청교사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사분들께서 굉장히 바쁘다 보니 한국의 상황을 배우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파견교사들의 경우에는, 배정된 시간상 해당 국가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교류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의 경우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출범 목표대로 잘 운영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협력국가들에서 오시는 초청교사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오시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다르고, 해당 국가의 교육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를 해서 이런 차이점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교사분들께서 이런 값진 가르침을 자신의 것만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참여교사들의 이야기와 경험과 지식을 좀 더 연계하고 누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한 교사분들께서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함께 새롭고 더 좋은 사업 운영 방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연간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쪽 이어지는 것, 즉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된다면 연구교사들도 서로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세계시민교육과 그 철학을 수용하여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팀이 내놓은 결론이었습니다. 아마도 연구진으로서 우리 팀이 제안한 정책 제안들이 앞서 언급된 것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시민교육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이 상호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적인 요소를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국가 수를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교들의 참여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들로 참여국의 수를 제한하고 개설 수도 있겠지만, 세계시민권이라는 가치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더 많은 국가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네트워크와 공동체에 더 많은 나라를 초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사와 학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APTE 사업에 참여했던 학교들에 대한 좀 더 조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류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교류국가 간의 네트워킹입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이후의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있는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20년 꾸준히 이어지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정책 제안으로는 APCEIU 외의 다른 기구들의 사업과 협력 관계를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사업과도 연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아이디어를 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책 제안은 참여교사들을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교사 연구자로서 보는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은 이미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 가봤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 노출되었던 교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학습에 대해 비교적인 교수 학습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연구자들이 매일매일의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참여교사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교육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8. 온라인 전시관: 아태교육원 홍보관,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온라인 교육활동 전시관

아태교육원 홍보관

전시구성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홍보영상 및 출판물 전시


전시목록

순서	구분	제목
1	영상	GCED Clearinghouse
2		Pre-Conference Webinar for the 5th IConGCED
3		GCED Online Campus
4		GCED 101: Introduction to GCED
5		GCED Lead Teachers Programme
6		APCEIU 20주년 기념 홍보 영상
7		보드게임 'Changers' (개정판) 룰 소개
8		Global Citizen Campus (Board Game) Teaser
9		글로벌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4차)
10		세계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선도교사 프로그램
11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홍보 영상
12	출판물	Photos from the 2006-2019 EIU Photo Class
13		Telling Tales from Southeast Asia and Korea: Teacher's Guide
14		Activating Partnership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Guide for Trainers
16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미래를 그리다
17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18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19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20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21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중학교 교사용)
22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고등학교 교사용)
23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한국판 해제본
24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초등
25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교사용 가이드-중등
26		GCED - A Policymaking Awareness and Advocacy Handbook
27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 (웹용)


아태교육원 홍보관

영상
출판물


For more information : [APCEIU](#) [GCED Online Campus](#) [GCED Clearinghouse](#)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홍보 영상




세계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선도교사 프로그램




글로벌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4차)




Global Citizen Campus (Board Game) Teaser




보드게임 'Changers' (개정판) 룰 소개




APCEIU 20주년 기념 홍보 영상




GCED Lead Teachers Programme




GCED 101: Introduction to GCED



GCED Online Campus



Pre-Conference Webinar for the 5th IConGCED



GCED Clearinghouse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전시구성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작 영상 및 출판물 전시

전시목록 |

순서	구분	제목
1	영상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교류(2014/초청 활동 영상)
2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교류(2014/파견 활동 영상)
3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2016/파견 홍보 영상)
4		몽골에서의 100일 (회상)(2016/파견 다큐멘터리)
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2017/초청 홍보 영상)
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2017/초청 다큐멘터리)
7		2017 SSAEM Highlight
8		2018 SSAEM Highlight
9		2019 SSAEM Sketch
10		캄보디아 교단에서의 120일 (소나기)(2019/파견 다큐멘터리)
11		2020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 바다 거북 구하기 (맛보기 강의/Khairunnisaa Binti Mohamad, 2019 Alumni)
12	출판물	[Letters from Korea Series 1] 무지개 나라 아이들
13		[Letters from Korea Series 2] 사랑을 담아, 한국으로부터
14		[Letters from Korea Series 3] 오색빛깔 한국
15		[Letters from Korea Series 4] 싸와디 한국
16		[Letters from Korea Series 5] 평화를 향한 여정
1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홍보 브로셔(2020)
18		2020 온라인 쌤 컨퍼런스 결과보고서
19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최종보고서

아태교육원 홍보관

영상 | 출판물

For more information: [APCEIU](#) [GCED Online Campus](#) [GCED Clearinghouse](#)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 GCED - A Policymaking Aware...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팬데믹 시대, 변혁적 교수법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미래를 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ctivating Partnership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elling Tales from Southeast Asia and Korea: Teachers' Guide... Journey to Peace through the Lives of Youth in the Asia Pacific...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영상 출판물

For more information: [APCEIU](#) [NEST](#)

2020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
바다 거북 구하기(맛보기 강의/Khairunnisaa
Binti Mohamad, 2019 Alumni)

캄보디아 교단에서의 120일 (소나기)(2019/파견
다큐멘터리)

2019 SSAEM Sketch

2018 SSAEM Highlight

2017 SSAEM Highlight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의 교육교류사업(2017/
초청 다큐멘터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의 교육교류사업(2017/
초청 홍보 영상)

몽골에서의 100일 (회상)(2016/파견 다큐멘터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의 교육교류사업(2016/
파견 홍보 영상)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교류(2014/파견 활동
영상)

글로벌교육 아태지역 교사교류(2014/초청 활동
영상)

교육교류사업 홍보관

영상 출판물

For more information: [APCEIU](#) [NEST](#)

초청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결과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의 교육교...

[Letters from Korea Series 5] ...

[Letters from Korea Series 4] ...

[Letters from Korea Series 3] ...

[Letters from Korea Series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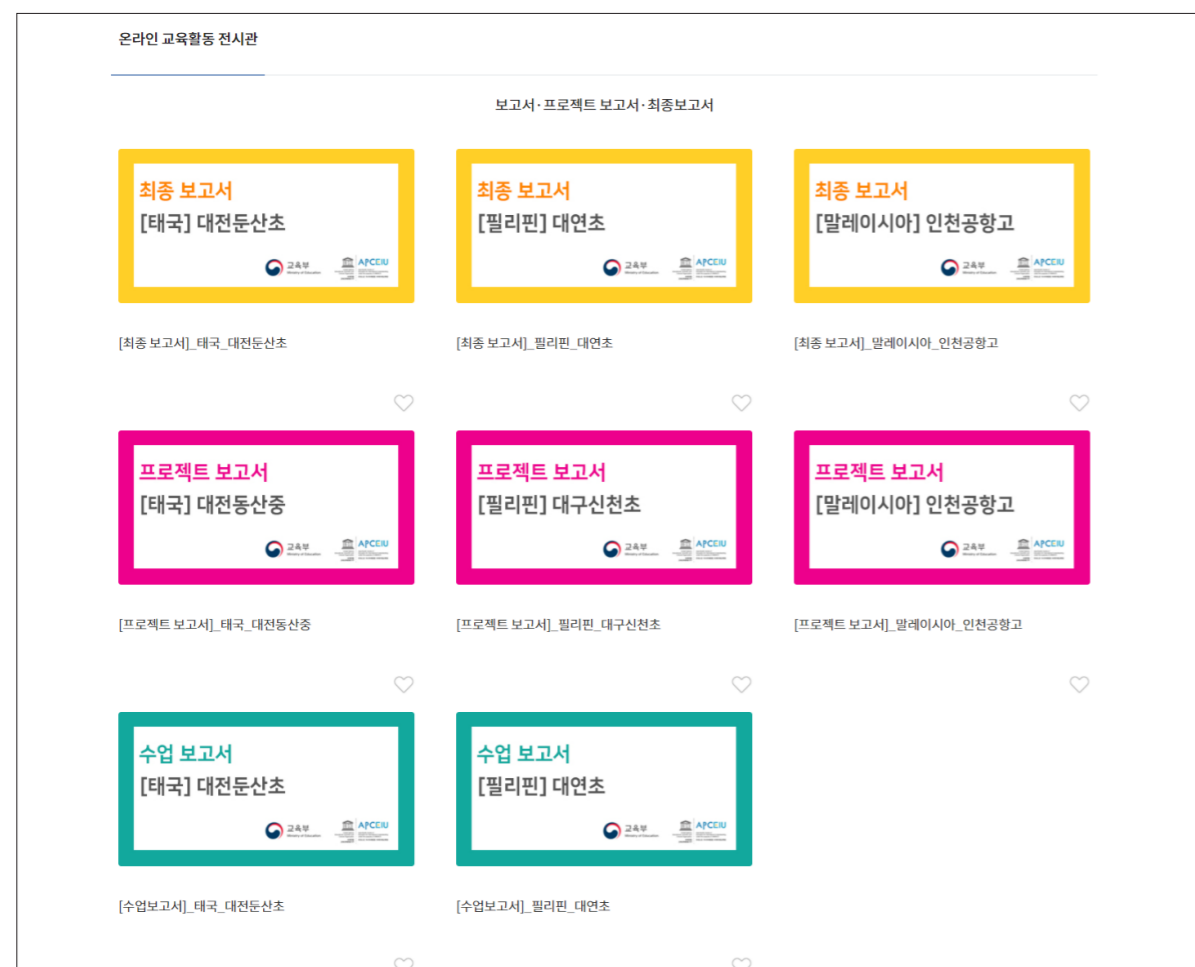
[Letters from Korea Series 1] ...

온라인 교육활동 전시관

전시구성 | 파견, 초청교사 우수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

전시목록 |

순서	제 목
1	[수업보고서]_필리핀_대연초
2	[수업보고서]_태국_대전둔산초
3	[프로젝트 보고서]_말레이시아_인천공항공고
4	[프로젝트 보고서]_필리핀_대구신천초
5	[프로젝트 보고서]_태국_대전동산중
6	[최종 보고서]_말레이시아_인천공항공고
7	[최종 보고서]_필리핀_대연초
8	[최종 보고서]_태국_대전둔산초



9. 온라인 체험관: 포토 방명록, 스탬프 미션, 만족도 조사

포토 방명록

진행기간 | 2021. 10. 18. ~ 11. 05.

참가대상 | 등록자 누구나

순서	제 목
박소영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송인숙	소중한 경험
이현경	Hi everyone!
Annalou CARREON	My GCED Experience GCED
Billyjake MANUEL	International Learning at Home
Bun PHALLIN	My Remarkable Experience
Eswaree KARUNAKARAN	Malaysian Clothes Fashion Show
Honeyriza YUVEGA	KPTEP 2021 EXPERIENCE
Jia Yi LING	APTE 2014 Orientation
Jocelyn CLEMENTE	KPTEP 2016
Julyn GUBA	Mabuhay!
Juthamaus THORAT	My presentation
Kristine Joan D. BARREDO	My KPTEP Journey
Lee MONCHOOI	hi everyone
Maancelene CARAG	I am a Global Citizen
Mohdhafiz MUNGIN	Korea Malaysia Teacher Exchange Programme 2018
Mohdnasir ZAKARIA	KOMTEP 2014
Nur Hafiza HASAN	Memories in Geumjang
Parthiban GOVINDASAMY	CULTURE DIVERSITY THROUGH KOLAM ART: AN INTEGR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CROSS THE CURRICULUM
Reyes JENEPIL	KPTEP BATCH 2019
Rosdianarawung ARNOLD	Understanding diversity from Indonesia Best Practice: Learning Indonesian Flag
Shellarose AMODIA	The Project LAYAG
Sitimariam BINTISULAIMAN	SSAEM 2014 Local Adjustment Training
Sok THIDA	Korea Cambodia exchange teacher program

Tuy CHANNAREN	Geography Online study
	Geography Online Exam
	Back to school
Wan SUHAIMIBINWANABDULGHANI	Malaysia Day in Ojeon Elementary School
	Malaysia Day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UNESCO APCEIU Republic of Korea 2021-11-03
Host Country: Mongolia Year: 2012

GCED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2021-11-02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21

My GCED Experience Department of Education Philippines 2021-11-02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21

Best Practice: Learning Indonesia...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 Indonesia 2021-11-02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8

The Project LAYAG RIZAL ELEMENTARY SCHOOL, DEPED PHILIPPINES 2021-10-29
Host Country: Region XI Year: 2021

KOMTEP 2014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2021-10-29
Host Country: Putrajaya Year: 2014

I am a Global Citizen DepEd Philippines Philippines 2021-10-29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9

KPTEP BATCH 2019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9

KPTEP BATCH 2019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Philippines Year: 2019

KPTEP 2016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6

Back to school TUY CHANNAREN Cambodia 2021-10-28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21

KPTEP BATCH 2019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9

KPTEP BATCH 2019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Philippines Year: 2019

KPTEP 2016 Korea-Philippines Teacher Exchange P...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6

Back to school TUY CHANNAREN Cambodia 2021-10-28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21

Back to school TUY CHANNAREN Cambodia 2021-10-28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21

Geography Online Exam TUY CHANNAREN Cambodia 2021-10-28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21

Geography Online Exam TUY CHANNAREN Cambodia 2021-10-28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21

Geography Online study TUY CHANNAREN Cambodia 2021-10-28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21

My presentation Sathasamut Thailand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21

My presentation Sathasamut Thailand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21

Understanding diversity from Ind... Mutiara Baru Vocational High School Indonesia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8

CULTURE DIVERSITY THROUGH K... Mr MALAYSIA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 Year: 2018

소중한 경험 인천공영고등학교 파견/초청국가: 말레이시아 파견/초청연도: 2021
Host Country: 말레이시아 Year: 2021

Mabuhay! TARIONG ELEMENTARY SCHOOL I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KOREA Year: 2015

International Learning at Home Cauayan City National High School Main Philippines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21

APTE 2014 Orientation Panang Free School Malaysia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4

Memories in Geumjang Curriculum Development Division, Min... Malaysia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7

Local Adjustment Training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Malaysia 2021-10-28
Host Country: SELANGOR Year: 2015

SSAEM 2014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Malaysia 2021-10-28
Host Country: 16 - FEDER... Year: 2014

hi everyone SMJK Chung Ling, Pulau Pinang, Mala... Malaysia 2021-10-28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9

Malaysian Clothes Fashion Show MOE, Malaysia South Korea 2021-10-27
Host Country: Malaysia Year: 2017

KPTEP 2021 EXPERIENCE KPTEP 2021-TISA 2 ES CEBU_VISAYAS... Philippines 2021-10-26
Host Country: Philippines Year: 2021

Malaysia Day in Ojeon Elementary... Mr Wan Suhaimi Malaysia 2021-10-24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8

Hi everyone! hi!!! South Korea 2021-10-22
Host Country: Cambodia Year: 2013

My KPTEP Journey Tunasan Elementary School Philippines 2021-10-21
Host Country: South Korea Year: 2019

스탬프 미션

진행기간 | 2021. 10. 18. ~ 11. 05.

참가대상 | 2012 ~ 2021 교육교류사업 참가가자 (일반참가자 제외)

참여방법 | 사업 참가가자를 대상으로 스탬프 미션을 완료 시 참가확인증 발급

- 1) 내 사진과 함께 포토 방명록 남기기
- 2) 포토방명록 5명 이상 손흔들기
- 3) 온라인 전시관 게시물에 좋아요 3개 이상 누르기
- 4)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스탬프 미션

**참가 확인서
발급안내**

- **발급대상** 교육교류사업 참가가자 (일반참가자 제외)
- **발급안내** 스탬프 미션 완료 시 "2021 SSAEM 컨퍼런스" 참가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스탬프 미션 완료 후 '참가확인증발급' 에서 발급 신청
- **발급기간** 2021. 10. 28.(목) - 11. 1. (월), 5일간

STAMP 1

내 사진과 함께
포토 방명록
남기기!

STAMP 2

포토방명록
5명 이상
손흔들기!

STAMP 3

온라인 전시관
게시물에 좋아요
3개 이상
누르기!

STAMP 4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

만족도 조사

진행기간 | 2021. 10. 18. ~ 11. 05.

참가대상 | 2012 ~ 2021 교육교류사업 참가가자

질문항목 |

2021 SSAEM Conference
2021.10.28 (Thu.)

본 설문지는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차기 행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됩니다.

1. 본 행사 정보 등을 인지하고 참석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매체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정보검색) 뉴스레터(e-mail) 주변 사람의 소개 예전부터 참여 기타

2. 이전에 SSAEM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요

3. 본 행사 참여를 결정하시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서 기존 참가한 사람의 참여 권유로 기존에 참여했던 결과에 만족해서 참가확인증 취득 기타

4. 가장 인상깊었던 세션은?

개회식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결과 발표 패널토론 사례발표 1 사례발표 2 폐회식

5. 다음은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란에 표기에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행사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웠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행사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서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발표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발표는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프로그램 기간(발표시간)은 적절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전체적인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내년에 본 행사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느낀 좋은 점이나 아쉬운점 및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소
제출



폐 회 사

임현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2021 SSAEM 컨퍼런스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기여에 대해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류 활동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또 크게 고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교육교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도전은 교육 현장을 넘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개 협력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또 그 지역을 넘어서 평화와 우호 관계의 구축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APCEIU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중요한 교육교류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대상 8개국의 교육부가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적 이해 증진 교육 관련하여 공유한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철저히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을 더욱 개선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국의 모든 교육부에서도 향후에도 계속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발전을 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APCEIU는 교류 국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에 올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류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 SSAEM Conference

Teaching Across Borders

아태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

